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東洋新事態에 對處할 根本方針決定

外相今日參內奏上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一日定例閣議席上에서 東洋新事態에 對處할 帝國不退轉의 根本方針을 正式으로 決定하엿다 本方針은 過般來 連絡會議에서 協議를 거듭 한것으로 其結果에 基하야 廣田外相은 微恙으로 靜養中인 近衛首相代身, 宮中의御形便을 伺하야 二十一日午後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新國策을 奏上하야 御裁可를 仰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閑院, 伏見兩幕僚長宮殿下께서도 御參內 新國策中 統帥에 關聯된 事項에 對하야 上奏御裁可를 奉仰할 御豫定으로 拜承된다 이로써 東洋平和를 雙肩에 걸머진 帝國至大至重한 指針은 御前會議를 기다리지안코 不動確立하게 되엿다

(寫眞은 廣田外相)

馬場前內相逝去

二十一日午前四時에

【東京電話同盟】馬場前內相은 二十一日午前四時四十分 逝去하엿다 (寫眞은 故 馬場氏)

略歷

氏는 明治十二年十月에 東京芝區에서 出生하야 同三十六年에 東京帝大法科政治科를 卒業하고 高文에 合格되여 大藏省에 드러갓다가 稅務監督局事務官 稅關監視官 同事務官을 歷任하고 朝鮮에건너와서 統監府書記官同財務監査官을 經하고 다시日本內地에 도라가 法制局參事官兼行政裁判所評定官 法制局第二部長 法制局長官을 歷任하야 貴族院議員에 勅選되엿고 昭和二年에는 日本勸業銀行總裁로 就任, 昭和十一年三月非常時廣田內閣當時大藏大臣으로 되엿고 現近衛內閣에는 內務大臣으로 드러갓는데 今月十三日病으로 辭任케 된것이다 그러데 氏가 勸銀總裁當初에는 金融方面에 그리밝지못하엿다고 非難까지바덧스나 몃해後에는 堂堂한 銀行家로되여 日本財界에 커드란 存在로 認定되여서 非常時廣田內閣때에 가장重要한 자리의 大藏大臣으로 마지하게되여 準戰時財政을 마러가지고 저러한 膨大한豫算을 計上하야 議論이 紛紛하엿든것을 생각하면 氏의 日本財政史上에 나타난 存在는 劃期的이라할것이다 氏는 金融家以外에 이미大正九年에 法學博士라는 學位까지바든이로 享年이 五十九

漢口市混亂 外人續續避難

【上海二十日發同盟】南京陷落後의漢口市內는 俄然大混亂에 陷入하야 漢口在留外人도 드듸여 生命財産이 危險에 暴露되엿기 때문에 英國巡洋艦케이라운號는 婦女子五十三名을 搭乘하고 去十八日빨리 漢口를 出發하엿다 이리하야 겨우上海에 到着하엿스나 그後揚子江은 支那側에依하야 完全히封鎖되고마럿스므로 殘留避難外人 二百餘名을 태우고 上海歸來豫定이엿든 英國人系大沽洋行의 우즈號는 마침내 下航不能에 陷入하엿다 이리하야 外洋에 通하는길을 喪失하고 粵漢鐵路를 남길뿐으로되엿는데 이것도今週末漢口出發豫定의 避難列車의座席에對하야 이미三百餘名의豫約申請者가 殺到하는狀態로人心이動搖하야 漢口는바야흐로大混亂에 陷入하엿다

靑島市民避難 邦人家屋掠奪

【上海廿一日發同盟】靑島其後의 情勢에 對하야 當地UP電話는左와如히 報道하엿다

靑島의 各埠頭는 全部封鎖되고겨우 英國側汽船 一隻만이 碇泊하고잇는데不過하다 靑島市民의 避難者는 二十日에도 繼續하야 幾千의 避難者는家財와 함께 奧地로向하야 避難을開始하엿슴으로 從來五十萬을 자랑하든 人口도 只今에는 六萬으로되고 十九日夜부터는 日本人家屋에 對한掠奪이 相當하게始作되엿다

兩陛下의 御寫眞

宮內省에서 御下渡

惶懼하옵시게도 破格의御盼附를 拜하고 全朝鮮五十九校가 感激裡에 奉安하여드릴 天皇 皇后兩陛下 御寫眞은 二十日 午後宮內省으로부터 御下渡하엿는데 御眞影은 總督府關係官이捧持 來鮮하야 二十二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 卽時로 總督府에 奉安하여드렷다가 翌二十四日午前九時부터 總督室에서 南總督으로부터 關係各道知事에게 對하야 傳達式을 執行할터인데 各關係學校中 奉安殿未完成의學校는 一時各道廳에 奉安하여드렷다가 來昭和十三年春 元旦 四方拜에際하야 五十九校가 一齊히 最初의奉拜의榮에 浴하기로되엿다

光榮의五十九校

皇國臣民의 喜榮에浴하는 半島에對하야 未曾有의 感激하압신 御盼附로 過般朝鮮人學校方面에對한 天皇皇后兩陛下의 御寫眞御下賜의言를 拜한 總督府에서는 宮內省과의周旋에 兩陛下御寫眞奉戴에對하야 愼重히協議中이든바 昭和十三年의 新春을 아페두고 이感激을 速히實現하고저 今回優先的의 官公立五十九校가 御寫眞奉戴의榮에 浴하기로決定, 總督府로부터 左와如히發表되엿는데 朝鮮人學校方面에 對한 御寫眞御下賜는 全然처음으로 總督府와 奉拜學校當局은勿論 半島一般民은 大端히感激하고잇다

大邱醫專 平壤醫專 京城城東中學 春川高女 京城第一高普 淸州高普 京城第二高普 全州高普 光州高普 大邱高普 海州高普 平壤高普 春川高普 京城女高普 大田女高普 光州女高普 大邱女高普 釜山女高普 海州女高普 平壤女高普 新義州女高普 咸南女高普 京城公立農業 濟州公立農業 光州公立農業 大邱公立農林 木浦公立商業 大邱公立商業 咸興公立商業 順天公立普高小 校洞公立普校 齊洞公立普校 於義洞公立普校 嘉會公立普校 漢江公立普校 德壽公立普校 仁川昌榮公立普校 開城滿月普校 榮町公立普校 大田第一普校 全州第一普校 群山公立普校 光州第一普校 木浦第一普校 釜山公立普校 富民公立普校 馬山公立普校 海州第一普校 平壤上需普校 平壤若松普校 平壤明倫普校 平壤南山普校 鎭南浦龍井普校 春川普校 咸興普校 元山第一普校 元山本町小學校

馬場前內相에 葡萄酒를下賜

【東京電話同盟】惶懼하옵시게도 前內務大臣 馬場鍈一氏 二十一日 危篤하다는것을 天聽하옵시고 御慰問으로 葡萄酒一打를御下賜하옵시엿다

皇后陛下 大宮御所行啓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옵서는二十一日午後一時十五分宮城御出門 大宮御所에行啓 皇太后陛下께御對面 歲末의 御問安을하옵시고 御團欒하옵신後 午後三時四十五分 大宮御所御出門 宮城에 還啓하옵시엿다

國際情勢에 對處 英佛兩軍協力?

海空軍提携交涉進捗

【倫敦二十日發同盟】極東問題를 爲始하야 最近險惡한 國際情勢의 展開에 鑑하야 英佛兩國政府는 最近兩國의 軍事技術提携에 關하야 頻繁히 折衝을 進行하고잇는 模樣으로 이提携는 主로 英佛兩國海空軍의 相互援助提携에잇다고 解釋되는데 一九一四年大戰當時의 英佛軍事提携에 依하야 더욱 一層密接할것으로 觀測된다 먼저 空軍의 提携에 關하야 去十六日 스위코、코트 英佛空相의 會談에 依하야 兩國의 緊密한 情報交換이 決定되고 또 明年一月初, 佛國空軍專門家一行이 英國을 訪問하야 마침내 具體的提携工作이 開始될것으로 觀測된다 英佛海空軍提携內容으로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空軍提携

一、兩國專門家는 新發見及 實驗의 結果를 相互로 報告交換함

一、英政府는 英空軍爆擊機가 裝備되여잇는 브리스톨筒型쌔付엔진의 使用을 許容한다

▲海軍提携

一、英艦隊의 一部를 極東에 派遣後 英佛兩艦隊는 地中海의 伊國艦隊와 均衡키爲하야 從來의 提携를 一層强化함

一、來二十二日 英閣議의 結果 英艦隊의 極東增派가 決定되는 境遇 英佛兩 海軍省은 卽時大西洋、地中海의 新警備分擔計畫을 左와如히 決定함

(가) 大西洋은英艦隊 (나) 西地中海는佛艦隊 (다)東地中海는英艦隊或은 英佛兩艦隊

廣東黨軍政會議

全省民武裝斷行을決定 各將領分擔區自衛

【香港二十一日發同盟】廣東當局과 一般市民은 我軍의 廣東進擊說等 市中流言이 百出하기 때문에 人心이極度로 動搖되여 軍民이모두 動搖하고잇다 綏靖主任 余漢謀, 廣東省政府 主席 吳鐵城等은 모든 手段을 講究하야 人心鎭定에 努力하고잇다 余漢謀를 主席으로하는 廣東黨政府連席會議는 情勢가 緊迫하엿다고하야 抗日積極策에 邁進하기로되여 全省民의 武裝을斷行하고 抗日戰爭에 當케하기로 決定하고 陳銘樞, 李福林等 廣東新舊將領으로하야금 各自分擔區域을 自衛시키며 一層軍備를 强化하기로되엿다

極東情勢에 對해 英外相委曲奏上

【倫敦二十日發同盟】이든外相은 二十日午後 버킹감宮殿에 伺候하야 죠지六世陛下께 拜謁한後 極東情勢에 對하야 委曲御報告하기로되엿다 皇帝陛下가 直接外相을 불르사 報告를 御聽取하신것은 極히 드믄일로 거이 重大時局인 境遇에 限하여잇기때문에 이든外相의 謁見은 頗히 注目된다 하바스通信 倫敦支局이 二十日消息通의 觀測이라하야 傳하는바에依하면 이든外相은 新嘉坡에對한 艦隊派遣要及 香港의 國際情勢에對하야 特히 最近情勢에 對하야 御報告할터이라한다 但 閣僚의 多數及 海軍專門家는 新嘉坡艦隊派遣要은 本國의 海上防備를 稀薄하게한다는 理由로 이에 反對를 表明하고잇스나 海軍省의 一部에서는

一、챔벨린首相은 充分히 自信을 가지고잇는것

一、滿洲政權은 艦隊派遣을 主張하고잇는것

一、佛國은 地中海에서 英國을 終始援助할 意思이오 艦隊를 極東에 派遣하더라도 地中海防備는 稀薄하게되지안는것

等의 理由에 基하야 艦隊派遣을 主張하고 아마 實現될것이라는 意見을 가지고 다만 艦隊가 派遣되더라도 艦隊를 新嘉坡에 集結할것이오 新嘉坡以北에는 나가지안을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首相感氣로靜養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感氣로 二十一日 荻窪別邸에 籠居靜養中임으로 同日의 閣議에는 欠席하엿다

國民政府高官

依然長期抗戰을豪語

【漢口二十日發同盟】國民政府는 全面的敗戰의 現實을 아페두면서 아직도 長期抗戰의 迷夢을 버리지안코 政府高官連은 二十日 AP漢口特派員에 對하야 左와如히 豪語하엿다

南京의 陷落은 一切의手段을 다하야 日本에 抵抗하는 我等의決意를 더욱 굿게할뿐에不過하다 我等의 意見은 長期抗戰論에 完全히 一致하엿스므로 蔣介石도 外國軍事顧問의 意見을容하야 日本軍의 進出을 防止할 新作戰計畫을 確立하엿다

英駐支大使更迭

【倫敦二十日發同盟】英國政府는 目下歸國休暇途上에잇는 駐支大使 휴겟센氏를 更迭하야 後任으로 이란駐劄大使 아치볼드·크라이크·카氏를 任命하기로 決定하고 二十日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重慶國民政府

新政權否認聲明

【上海二十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重慶의國民政府는 二十日北京의 中華民國臨時政府를否認하는 左와如한聲明을發表하엿다

日本이 軍事占領後 新政府를樹立한것은 中國의領土行政의主權을 侵害한것이오 日本의 意圖는 全支를倂合하려는 野望을 立證하는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國民政府는 北京政府뿐아니라 日本의軍事占領地區에잇는 如何한組織이라도 이를 承認할수는업다

그리고 國民政府는 右의聲明을發表하는同時에 軍事委員會에對하야 新政府에干與한 要人에 對하야 嚴罰로 處分하라고 命令을 發하엿다

【上海二十日發同盟】國民政府는 二十日中華民國臨時政府否認聲明을發表하는 同時에 新政權要人의 逮捕通緝令을 發하엿는데 이는 北支의各要人을 爲始하야京城總領事 范漢生氏 鎭南浦領事張義信氏等新政權의 使命을認識하야 이에參加하려는者가 續出하는 形勢에 沮喪한 國民政府가 敗戰의 責任을回避하는同時에 國民에 對한體面을 만들기爲하야發表한것이다 그러나北支에 誕生한新政權의 巨步는 如斯한一片의 否認聲明에 動搖하는것이아니오 오히려國民政府가 頑迷히 長期抗戰을 豪語하고 스스로 如斯한 事態에到達하면서 新政權…

平壤中華商會 新政權에參加

【平壤】新南浦中國領事 張義信氏는 北支에成立된 新政權에參加하기로되여 中外에 鮮明을 發表하는同時에 鎭南浦領事館에서 二十日新政權의 五色旗揭揚式을 擧行햇는데 平壤府內萬九里 中華商會에서는 會長孫寶玉氏以下幹部 十數名이 會集協議한結果 新政權에參加하여 日滿支의 共存共榮을 期約하는 一方 張領事를 支持하기로되여 二十日 新政權旗揭揚式에 代表로 參席케햇고 平壤府內巡慶里事務所에 달니엇든 國民黨支部의看板을撤去해버렷다

時事解說

滿鐵

南滿洲鐵道株式會社는 明治三十九年十二月 日露戰爭直後 滿洲의 產業 文化의 發展을 圖하기爲하야 創設한 半官半民의 會社이다 初代總裁後藤新平伯은 同會社의 創立精神을 十二分 [illegible] 的 [illegible] 事業을 [illegible] 하야 會社의 [illegible] 에 各般大計畫을 [illegible] 하엿다 同社는 [illegible] 滿洲開發에 三十餘年의 歲月을 보내는 동안에 [illegible] 의 發展에도 急激한 [illegible] 하는 反面에 滿洲의產業 文化向上에 非常한 貢獻을 하여왓다。

◇ 昭和六年九月 滿洲事變이 勃發하자 이에뒤이어 滿洲國이 創立되고 其國策이 日滿一體主義에 依하야 [illegible] 지난十二月一日부터 治外法權撤廢까지 實施되여 [illegible] 上에 重大 變動을 齎來하게 되엿다 따라서滿鐵은 滿洲國建國에依하야 三十二年前 그創立使命으로되엿고 도하여오든 滿洲開發의任務는 一段落을告하지안이치못하게되엿다。

◇ 여기서 滿鐵은 昨年以來 滿洲開發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새로운 角度에서 多年의 [illegible] 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事業을 [illegible] 하엿다。이에 새 出發에잇서서 [illegible] 에 가로놓이게된 것이잇스니 그것은 곳 日產系資本의 滿洲進出이다。여기서 滿鐵에서 投資한 滿洲重工業會社가 分離하게되자 事實에잇서서 滿洲의 各種商工業及 鑛業 農業 其他모든事業을 直接間接으로 經營하여오든 滿鐵이지만 그 權能과 活動範圍에 莫大한 制限을 밧게된것이 滿鐵의 現狀이다。

[illegible] 出現에 只今새삼스러이 [illegible] 하고잇는것은 可笑한일이라하고 잇다

英勞働黨機關紙 强硬態度를示唆

【倫敦二十日發同盟】勞働黨機關紙 데이리·헤랄드紙는 二十日紙上에서 香港의事態에 關하야 如左히論하엿다

香港의防備는 [illegible] 을 加하고잇는데 萬一同植民地가攻擊된다면 日英戰爭은 必至이다 그러나 日本이支那의 全領土를 占領하더라도 香港에는 아마손을 대지못할것이다 이는 日本이 英國은 全世界의 힘을다하야 自國領土의保全에 [illegible] 할것이라는것을 熟知하고잇슴으로써이다 萬若英政府가 日支紛爭에臨時 佛、蘇、米、和蘭等諸國과 聯合하야 日本의支那侵略은 此等列國에對한攻擊이라고 警告하는것을 聲明하엿다면 今日의事態는 發生치안엇슬것이다 이것으로보더라도 英政府는 斷乎한態度를取할것은 明白하다

英政府는끗까지 國民政府를認定

【倫敦二十日發同盟】이든外相은 二十日 英國下院質問時間에 勞働黨議員 아서·헨더-슨氏의 質問에答하야 英國政府는 中華民國臨時政府를 不承認한다는 方針을 示唆하엿다 質疑應答은 如左하다

헨더-슨議員 英政府는 如何한境遇에라도 北京에 成立한 中華民國臨時政府를 承認치안는다는 確約을 與하기바란다

이든外相 英國은 國民政府를 支那中央政府라認定하고잇다 따라서北京에成立한 新政權을 承認할지안할지의 問題는 發生치안을것이다

陳公博特使 英首相을訪問

【倫敦二十日發同盟】蔣介石의特使로 歐洲各地를 巡遊中인 支那政府前宣傳部長 陳公博은 駐英支那大使 郭泰祺와同道 二十日午後四時半下院에 췌임벌린首相을訪問 約三十分에亘하야 會談을遂하고 同五時辭去하엿다

八面鋒

◇ 英이든外相이 죠지六世陛下께 極東情勢를 報告한 가운데 極東에 主力艦增派는 實現되리라하얏고、

◇ 英佛兩國의 海空協力에잇서서도 英國의 極東艦隊增强은 確實性잇는것으로 觀測。

◇ 多端한 極東에 英國艦隊의 增强은 一層 政局을 刺戟。

◇ 不言不行의 蘇聯은 肅淸工作만 繼續。

◇ 스탈린政權은 强해질지 모르지만 옛날의 革命元勳을다 죽이고 저만 잘나면 어찌하나?

◇ 日 저노비에프 日카메네프 日 루이코프 日 토하첼스키 日 카라한等等 不可勝數。

◇ 萬一 放逐, 左遷等의 件數를 돌자면 一層驚愕。

◇ 日 트롯츠키 日 부하린 日 칼리닌等 凡幾人이뇨。

◇ 北支經濟開發로 黃海가 湖海化하리라고。

◇ 西朝鮮一帶가 活氣를 띄긴 이로군。

靑島在留米人에 米領事撤退勸告

【上海二十一日發同盟】本國政府로부터의 訓令을接受한 米國青島領事 사무엘소코빈氏는 今日靑島在留 米國人三百名에 對하야 撤退를 勸告하엿다 在留米國人中에는 크리스마스以前에上海로 撤退할計劃을 세운者도잇스나 大部分의 男子는 靑島에 머물르기로되엿다

偉勳部隊에 小磯司令官祝電

朝鮮軍新聞班發表 太原攻略戰에 奮戰하야 武勳을세운 ○○部隊及 娘子關附近의戰鬪에서 偉勳을세운 左記部隊에 對하야 ○○軍司令官으로부터 感狀을 授與하엿다는 報告에接한 朝鮮軍에서는 二十日小磯軍司令官으로부터 左의祝電을發하엿다

○○部隊長에게
貴隊의太原攻略에對하야 ○○軍司令官으로부터 感狀授與에 慶祝不堪하고 또將來의 御奮鬪와 御武運의長久함을 祈禱한다

○○隊長에게
貴隊의娘子關附近의 戰鬪에對하야 ○○軍司令官으로부터 感狀을授與하엿다는바 慶祝에不堪하고 또將來의 御奮鬪와 御武運의長久함을祈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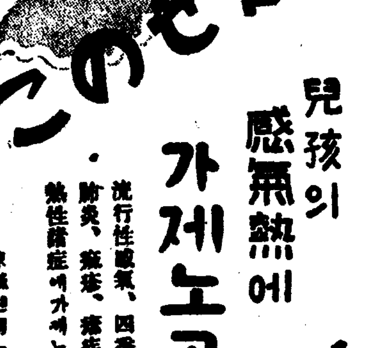
理髮器具 鏡台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醫學博士 方斗輪
方小兒科醫院
京城府齋洞四街里
電光一二五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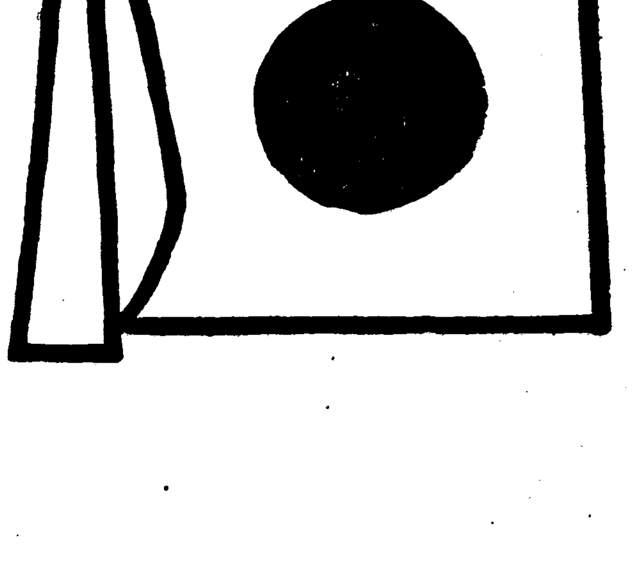
病人의 飮料에
カルピ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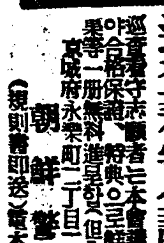
理研淸酒
新世界
戰勝景氣에 凱歌는 올은다 新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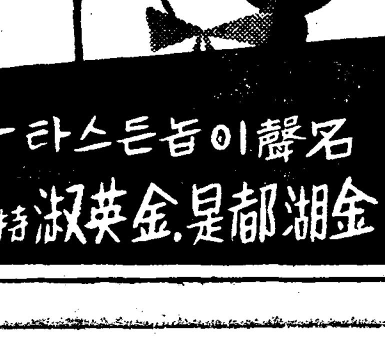
宿醉업合
大鮮釀造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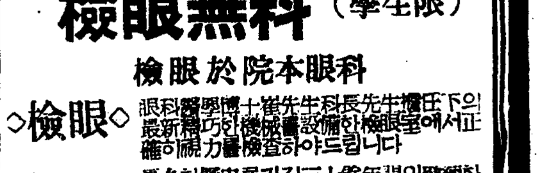
兒孩의 感氣無熱에
가제노고
流行性感氣、四季의感氣、百日咳、肺炎、痰疾熱、其他諸般의 熱性諸症에가제노고는効力卓越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一圓


ランランチック
燦然히 世界에 빗나는 日本의 名品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望者는本會講義錄卒業으로依하야合格保證 … 朝鮮警務學會


メバッツ バー
華麗新設備完全 出現
鍾路二丁目三四
電光 一八五七 三六七八番
名聲이놉흔스타—
金湖都是. 金英淑 特別써-비스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底値!買どき
割引十三、四回
利息 … 日步
[illegible]


檢眼無料(學生限)
檢眼於院本眼科
◇檢眼◇ 最新精巧한機械를設備한檢眼室에서正確히視力을檢査하야드립니다
◇眼鏡◇ 長久한歷史를가진三十餘年間의熟練한技術과精密한機械를完備한工場에서正確히製造하야드립니다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長城을넘는人間洪水
十月中北支入國者六千餘名
紅裙黨八百名이異彩

천진(天津)주재 미전총독부사무관(米田總督府事務官)으로부터 총독부에드러온 보고에의하면 사변발발이래 북지(北支)에 진출자는 점차증가하는경향인데 그중에는 주의를요하는불량 리권운동자 일확천금몽상자 만넘입국자 기타일비입국자로하야 종래재류동포에게 상당한악영향이 잇슴에비치워 천진총령사관(天津總領事館)에서는 폐단을제거하기위하야 그동안 입국자의려행증명을발행한결과 지난구월이후 불량자흥은 만여입국자는거의업서기다심하하야 그성적이자못당호하다 이제지난시월중 북지각지로향하야 증명서를가지고 입국한조선인을보면 천진이 사백팔십사명, 북경(北京)팔십삼명 산해관(山海關)이 이백팔십팔명 진황도(秦皇島)가 칠십팔명 고주(古州)가 칠명으로 합계구백삼십팔명이다 그리고 또다시조선인 일본내지인 만주인동을통관하야 시월중 입국한자를보면 북경이 륙백삼명 산해관이 오백삼십오명 고북구(古北口)가오십륙명 진황도가 오십구명으로 합계 륙천칠십오명의 다수에달하는데 이외에 입국저지를 당한자가 오십일명이나잇다 그리고 시월중 입국자의 주요한 직업별로보면 만철직원이 이백명 신문통신 기자가 륙십륙명 철도직원이 륙백십이명 은행회사원이 륙백사십오명 상점원이 이백이명 토지건축청부업자가 일백오십일명 일반상업자가 삼백십륙명 무리러딴여자가 삼백사십일명 작부, 기생이팔백사십오명으로 신흥기분에 호기심을가지는 작부, 기생이 단연최고수자를 점령하고잇다

해마지溫情을求하는 朔風에떠는鐘소리!

어제오늘은 령하십이도! 십사도! 뼈ㅅ속으로 숨여드는 추위와함께 올해도마저 그대목을 재촉하듯 저무러가는 거리의 오고가는 거름들이 달리는듯 분수한데 그래도 먼곳거름을 머무르고 한푼두푼 주머니돈을 떠러트리는것은 네거리마다 울려오는 구세군(救世軍)의 동정남비(同情鍋)로의 종소래이다 기한에서 허덕이는 희망업는 불상한동포에게 적으면 적은대로 만흐면 만흔대로 힘껏 마음껏 동정을 나누자! 이십일일부터 거리마다 나왓다 (사진은 명치정 네거리에서)

儆新生徒新募엔 理事會態度不退轉
―明年度의豫算問題까지討議하고저―
明日午後續會開催

"교육이회원총"에의하야 경신학교에서도 명후년신학까지에 인회한다는것을 성명(聲明)한후 장로교선교회실행위원장 "로ー드"(魯解理)씨가 그전제수단(前提手段)으로 명춘신입생모집을중지하여달라고 요구하대대하야 경신리사회에서는 지난엿새날긴급회의를열고 신입생모집여부의권한은 리사회에잇지 선교회에잇지안는것을 "리사회규약"명문에 준거(準據)하야 주장하엿는데 폐교전야(前夜)의 경신에대하야서는 한대의 "감를" 주사와도가튼것으로 이쪽단결의가 던지팡ㅂ은 선교회에대하야서는물론 리사회다른부석분자인경성로회(京城老會) 동로회(同老會) 직원회(總會)에 채임을자각케하는 중대한기회가되엿슴으로 리사회는 그뒤에 전개될여러문제를 토의하기위하야 이십이일오후 속회(續會)를 열기로되엿는데 그내용은전하는바에의하면 선교회의태도가 어떠한든 명춘에도 례년과가티 신입생을 모집할것을 단정(不退轉)의 결의를굿게하고 거기에따르는 여러가지 수속문제를 론의하는동시에 명년도의경상비(經常費)에까지 회의를진전시켜 리사회의 권한과기능(機能)을발휘하야 명실이가튼 경신학교 경영주체로서의 역할(役割)을 하자는 적극적태도를 보히고잇슴은 일반의기대와 주목을 끄으는바이다

產業組合令解釋에 高等法院新判決
組合長이他人代理人으로契約境遇

『산업조합(産業組合)의 조합장이 다른사람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조합과 계약을 매결할우에는 감사(監事)가 그조합을 대표할것으로 조선산업조합령(朝鮮産業組合令)제이십칠조제삼항(第二十七條第三項)은 이러한경우에는 적용되지안는다』는신판례ー 지난심칠일 고등법원민사부 도변(渡邊)재판장은 경남사천군사천면수석리(泗川郡泗川面洙石里) 사천산업조합 대표정진건(鄭鎭健)씨대 사천면구암리(龜岩里)구암토지회사(龜岩土地會社)대표여국(呂學國)씨와의 비료대금청구사건에 대하야 피고구암토지회사는 원고 사천산업조합에 비료대금 오천오십원을 지불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審理未盡)의 리유로 파훼하고 다시사건을 원심재판소인 대구복심법원에 돌려보낸다는 판결을내리는 동시에 적당한바와가튼신판례를 지엇다 사건의 내용인즉 작년팔월이십삼일당시 원고 사천산업조합 조합장이든 최연무(崔然武)씨는 피고구암토지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조합리사 정진건씨와 비료삼정류안(三井硫安)일천가마니 매매계약을맷고 피고회사는 현품이 도착되는동시에 대금오천오십원을 지불하고 원고조합 사무소에서 물건을찾저 가기로 약속하엿다 이리하야 원고조합은 곳물건을 주문하야 그달이십칠일에 현물이 도착되엿슴으로 피고회사에통지하엿스나 피고회사는 대금을곳지불도안코 작년이월이십구일부터 사월십일일까지에 류안 일백스무가마니를 차저가고 남어지는 차저가지아니하야 원고조합은 고등법원에 다시 최연무씨를 대리로하야 계약시킨사실을 부인하고 또그때 최연무씨는 원고회사의 조합장이든 최씨가 피고회사의 대리를 한것은부당하다하야 원고의요구를거절한것인데 일심과 이심에서는 비록최연무씨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라도 피고의대리인이되야 그조합리사와 계약을매즌것은 산업조합령제이십칠조제삼항에 규정된『조합과 사고가잇슬때에는 리사(理事)가 대리할』이라는것에 해당한행위라하야 피고회사는 원고조합에 대금오천오십원을 지불하라는판결을 내렷다 패소판결을바든 피고회사는 고등법원에 다시 불복상고하야 그간 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든바 계약당사자인 최연무가 피고회사의대리를마텃스면 당연히 산업조합령제이십삼조(第二十三條)에 따라 그조합감사(監事)를상대로 계약을체결하엿서야될것인데 조합리사를 상대로계약을 체결한것은 부당한것인데 원심에서는 심리도철저하지안코 막연히조합령제이십칠조제삼항을 적용하야피고에게 패소판결을 나린것은 부당하다하야 전기와가티원심판결을파훼하고 대구복심법원으로사건을다시돌려보내게된것이다

平壤에또火災 二戶一棟全燒

【平壤】 십구일오후세시사십오분경 평양부남문정(南門町)칠십칠번지 김항수(金恒秀)의집에서 ...

崇中·崇義兩校問題
李、韓兩氏寄附는不問
公立高普로實現
明春新學期에新入生도募集

【平壤】 평양부내의 숭실전문(崇專) 숭중(崇中) 숭의(崇義) 등 세미순회에서 경영자의 메교시청을 하여 명년삼월 메교하여버리게되엿슴은 루보와갓거니와 숭실전문학교는 재단법인 대동학원(大同學院)에서마타 경영하기로되여 우리들로하여금 락관을하게하고잇스나 숭중과 숭의등량교는 인계경영을한다고 나섯다는 리승훈(李昇薰)과 한인보(韓仁輔)씨가 도당국에서 권고하는 최소한도 오십만원이상의 출자에 대하여 응치못하게되여 현재기부햇다는 리씨의삼십만원 한씨의 토지(土地)봉록만으로는 도저히 학교를 인계경영할수는 업는것이무어보다도 분명한사실이므로 도당국에서는 현재의재정생활면 춘사월부터 공립고보(公立高普)로서 긔어코 량교를 개생케하여 기로태도를결정 여기에대하여계획을착착진행중이어서 늣저도명년일월안으로 전부에대한 준비를맛치고 이월중에신입생모집을시작하야 삼월중에 입학시험을 실시하기로 될터이다 그러데 신입생모집할 한곳현재생과가티 현재의 교사를 빌리어 신교사가 완성될때까지 수업할것외에 다른방법은 업슬것인데 그때에 맛추어회가 교재산의 불만하면 현학교재산의 장래가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이될지도 불명하다 무미(武尾)평남학무과장은 공립고보설립에대한 구체안을 가지고 입경하엿다한다

一石二鳥式의 捕盜功名談!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포도(捕盜)자랑 ... 거동수상한 소년두명을 붓잡아 취조하엿든바 ...

一陽이來復 明日이冬至

이십이일은 음력 십일월 일일이다 이십이일은 동지(冬至)로서 시간은 오후세시이십이분이다 예전부터 이날에는 팟죽에다 새알심을만들어너서 쑤어다 례도지내고 대문깐에 뿌리기도하는 풍속이 전하여내려오다 동지가 지나면 이드러오는것으로 아프로 소ㅡ기는하엿스나 벌서 겨울도 한고개넘은셈이다 이십일일아츰 경성지방의 최저기온은 령하십사도가보다도 이도나더 내리여 이겨울들어 첫치록을지엇는데 이치위는 아프로 한이틀더 계속한후 다시 상온일기에 들어가겟다한다

戰死한大月氏 郡民葬을擧行

【富川】 부천군 소래면(蘇萊面) 대월(大月)씨는 북지사변당시에 ○○부대에 가입되야 해양에 ... 부내 영예의 전사를 하얏다는데 이십일일 소래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군민장을거행키로 되엿다한다

季節犯罪 薪炭仲介
시골나무장사들을골리는惡黨

新興鐵道不通

신흥철도(新興鐵道)함남선 ...

全鮮郵便局所에서 貯蓄債券保管取扱

天氣豫報

내달을차저주

새해를마지하는 부모에게 집나간아들이 오죄이나 그리우리! 이십일일아츰 신당정(新堂町)삼백사십칠번지 김치종(金治宗)의 집에사는 강대섭(姜大燮)의처김씨(金氏)가 동대문서에 차저와 녀달이나 소식업시지내는 둘재딸을 ... 차저달라고 ...

딴은歲末街頭!
10,300圓 金現
正直한店員이주어서警察에
謝禮金으로九百二十七圓

세모에잇슴직한 거리의 명랑한 풍경! 백주대로에 흘러저잇는 현금 일만삼백원을 주어서 용산서에 계출한 기특한 상점의 교원이잇다 ...

그少年心膽은"도지카"
훔처탄택시로돈버리
어깨넘어으로배운運轉技術로
한時間동안一圓八十錢"副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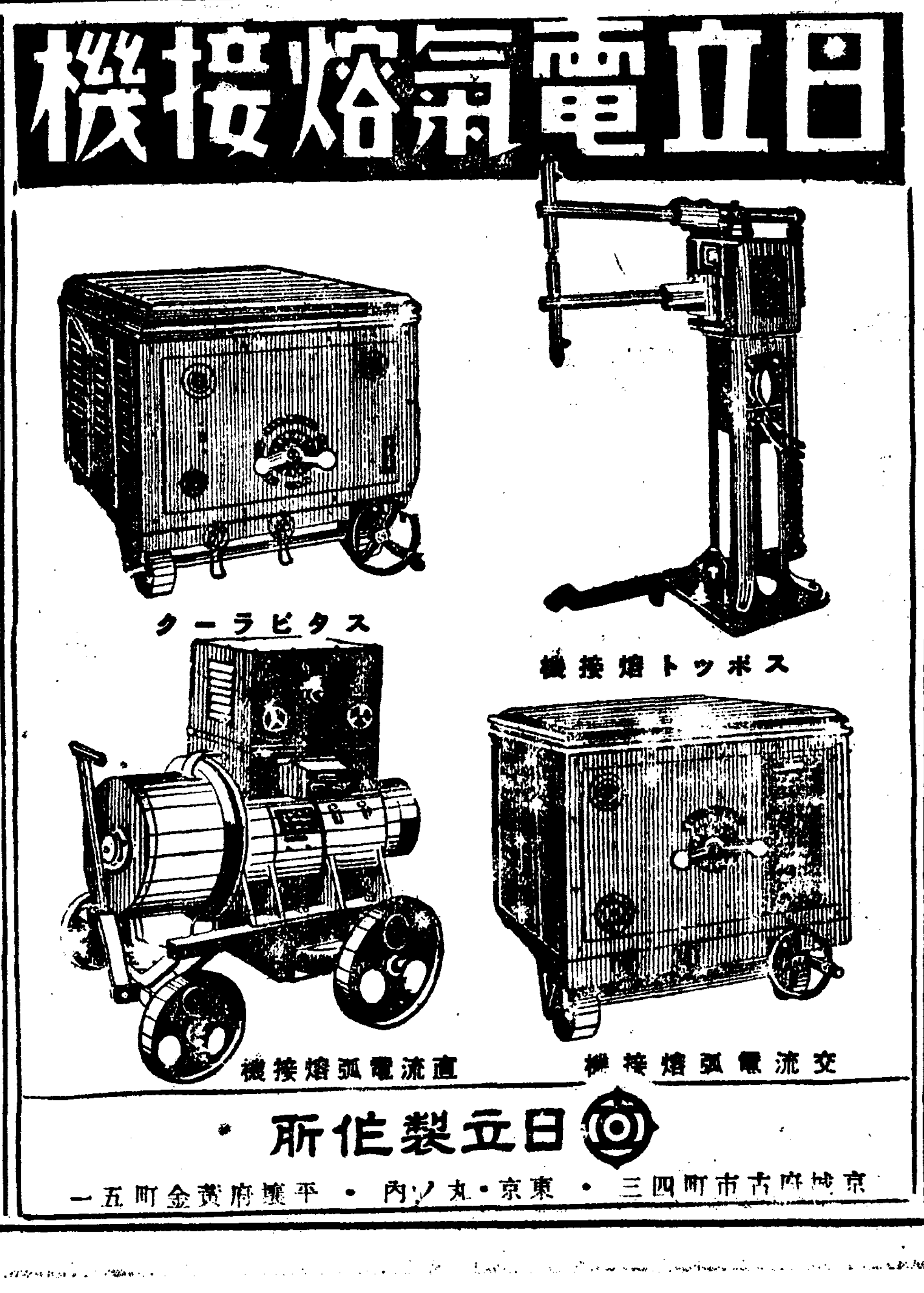
會寧雄基間에 自動車運輸開始
滿鐵에서受托經營

貧寒으로飮毒

殺人騷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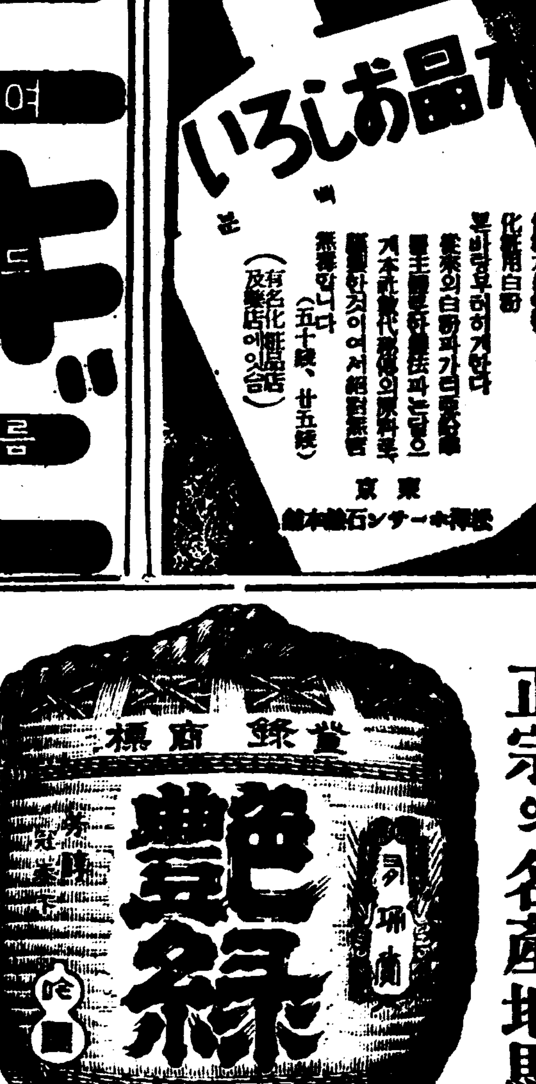
失業勞働者 飮毒自殺

貨物自動車가 行人을또轢殺



ニキビ 여드름
單純한化粧水가아닙니다
여드름·脂肪顏治療劑
ユキワリミソ

化粧水를兼한 化粧用白粉
いろしお晶
東京 ·石鹸本舖



小資本業內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科 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京城府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東京中外商業新報所載
동경중외상업신보소재

무서운매독으로말미암아 불행을맛본 실로가사를보시오

남편은 밋처(發狂)바리고 시어머니는구박만하니 시집사리못해!

問 ◇나는 이십칠세되는 녀자인대 사년전에 명고옥이라는곳 어느 집으로 시집갓습니다 시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세식구이엿습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일심정력으로 봉양을 하엿는대 시어머니 눈에나서 반년이못되여 잔소리가 심하야지고 아무일업는것도 남편에게 또박게말을 고자질하며 협박하기시작을하얏슴으로 남편은 새중간에서 엇지할줄을모르고 매우 곤란한모양이엿습니다 그런대 작년이월에 남편은 별안간 발광(發狂)하야버렷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바든즉 십년전에 걸녓든 매독이 머리로 드러가서 뇌매독이 된까닭이라합니다 이러한것을 시어머니는「네가남편을 잘못주리서 걱정만식힌까닭으로 밋처버리게되엿다」고하면서 네가잇스면 더ㅣ심하야질것이니 친정으로 도라가라고 쫏처냇습니다

그후 할수업시 친정에를 다니고 사람을식혀 민적을 빼서달나고 교섭을하엿스나 도모지 결말이나지아니하고 발서일년반이되도록 그대로 잇습니다 지금다시시집으로가자하니 그도 어렵고 그러한이라도 남편이나 바른정신으로 도라오면 모르되 조금도 낫지아니하고 점점발광증이 심하야지니 남편에게는 참아못할일이요 세상에서는 병든남편을두고 갓다고 조롱할지도 모르나 그러타고 도저히 시집으로 갈처지가아님니다 또 친정에를 언제까지든지 폐를끼칠수도업고 맛침 다른데 혼담도잇슴으로 빨니 결말을 질라하는대 민적을가를라면 재판을 해야하겟습닛가 그리고 아들은 둘이나 엇엇는데 남편의매독이 전염이되야 난지 얼마안되여 죽고마랏습니다

이일을 장차어지하엿스면조켓습닛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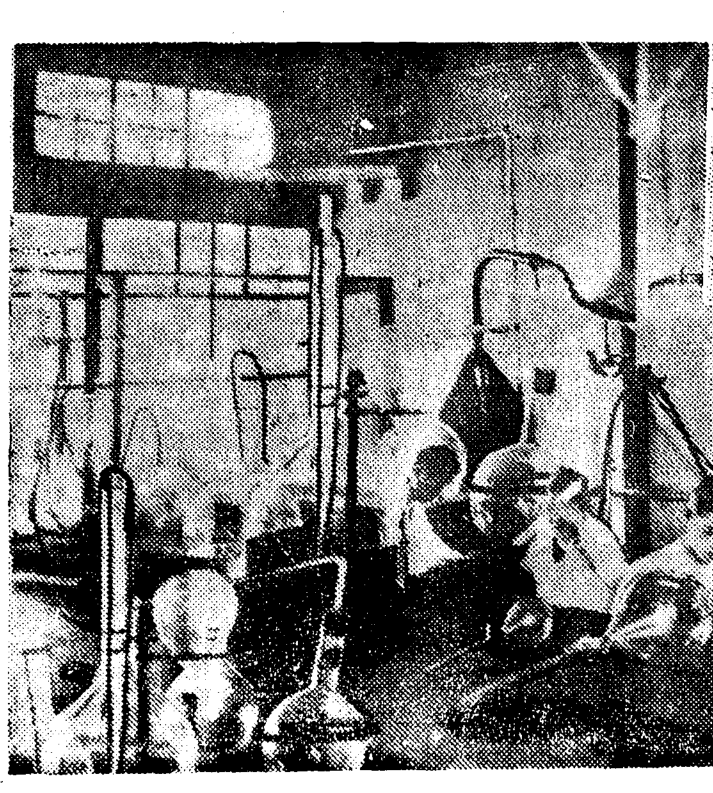
答 또한 사정입니다 적당한사람에게 의뢰하야 교섭하시오

무료혈액검사 지방에서설비가 불충분하야 혈액검사를 못하시는분은 의사에게 피를 뽑아보내시면 무료도 검사표를보내드리겟습니다(保健奉仕)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약 가	
완고중에	십오원
중 증에	십원
보 통에	칠원
경증예방에	오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다른명과다르니「십오원짜리」를 쓰시고 후환을업새시오



신성당제일시험실광경일부

(제이시험실광경일부)

이러한 조선제일가는 큰시험실(試驗室)은 신성당박게업다。

매독엔 푸로다ㅣ가 제일

驅黴最强力劑

주사로안낫는 분은 꼭 푸로를 다를쓰시오

매독 전멸에 제일힘센먹는약

血의敵

앗가운 청춘 꼿다운 청춘을보호 하자

全人類의敵 (전인류의적)

언매독을박멸하자 내무성통계(內務省統計)에 매독으로사망하는자가 일만명중에 一一〇이라는 수자로서 다른나라보다도 몃배더만라한다 더욱 사람의꼿따운청춘시대에 특히만흔병이니 참통탄할일이다 그런대 어병은 화류병이고 또 코가 떠러지고 언청이가되고 ◯이빠지고 룩룩 창독어러지고 하는아주 전독하고창피한 악질임으로 병에걸녓서도 남이붓그러워 잘말하지 아니하고 내외간이라도 말못하는 일이 만타 또 유전으로 선천매독이 만흐나 이역시 매독인줄 알면서도 잘 말하지 아니한다。그럼으로 매독이 이세상에 그러케만치 아니한줄알지만은 한번 걸리여서 고치지 아니하면 칠팔대(七八代) 유전하는 이매독이 우리 언류에 얼마나 만히 퍼저 만연되여 큰 해독을 주는가는 일반 전문가는 물론 나라정부에서도 크게 근심하는바이다 일시적(一時的)、불합리(不合理)、불충분(不充分)한 치료(治療)를 배제(排除)하자 분(分)... 도리혀병을악화한다 병고치려다가

生命을빼앗긴다 (생명을빼앗긴다)

그런대 보통、매독이라하면 륙백륙호(六〇六號)주사로 병균을 일시 잠복만시키는일서적 치료법외에는 특별한 약이업섯다 하는수업시 독한약을 피우다가 참혹히 피를토하고 죽는수가 만헛고 또주사도 일주일에 한번씩 수십주일을 두고 마저야 겨우 그만하기는하나 춘추(春秋)로 다시 도질뿐아니라 잘못마지면 살이썩고 생명에도관계되며 수십원 수백원의 금전이들게되니 무서운 병인줄알면서도 그대로 두게되니 참절통비탄할 일이다

放心絶對禁物

비관치마시오 悲觀無用

중병이라고 비관할 것도아니오 경증이라고 방심은 절대마시오 특히 잠복성매독은그다지 심하지아니함으로 등한히 생각하고 치료를 태만히하면 병세는 점점 기피드러가 내장 골육(骨肉)에까지 침입 하며 척수(脊髓)로부터 균이 머리로 드러가 발광(發狂)하게되며 중풍 반신불수가 되기도하고 심장마비(心臟痲痺)뇌일혈이되여 일조에 생명을일케된다 하물며 잠복하지아니하고 외부로 터지기 시작하면 연한 뼈를 침노하야 파드러가는 성질임으로 코가 부지중에 떠러지고 왼몸에 종기가 터지고 골수로 드러가 사대육신이 쑤시고저리고하야 참혹한 일생을 보내게되며 무죄한 자손에게 유전하야 적악(積惡)하게되니 엇지 두렵지 아니하리오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한것은우리의신체오 우리의생명이다

육체를 갈가먹고 생명을 빼아서 인생을 여지업시 짓밟버리는 대적중에도 악독한 대적을 전멸하자 매독전멸

치료계의광명

전인류를 구원하는 천사가왓다 과학의 위대한힘은 드디여대승리(大勝利)의함성(喊聲)을 치고 세상에나왓다 수만흔 환자의 물밀듯하는 감사의 편지가 산갓치 싸엿스니 완전히 악독한 병마를 정복(征服)하고마럿다 매독、당창에는

푸로다ㅣ가제일

이라는말이 드디여 세상을 뒤흔들고마럿다 그러면 푸로다ㅣ가엇지하야 매독을 전멸식히나 절대

특효한리유

는무엇인가

일、내복하야 합리적흡수(合理的吸收)속먹은약기운이 완전히흡수된다

이、그리하야 혈관을 통하야 피를맑게(血液淨化)하며

삼、약이혈액중의 백혈구(白血球)와 합력하야 병균을 죽이는 힘이제일 강렬한것(殺菌力强烈)

사、신진대사의 기능(代謝機能)이 특수함으로 당창이러진데라도곳새살이 나서낫게되고(筋肉蘇生)

오、병독을 박그로내ㅣ모는 성질이강하고 속함으로내장에 병독까지속속드리 업새게되고

륙、「주사」는 피속에 병독균을마취(魔醉)하게할뿐이나 이약은 골수에깁히 백인균까지전멸식힘으로 신체내에 잇는독이완전히치료된다

칠、그럼으로 절대로 재발 되지아니한다 (絶對不再發)

팔、약성질이 제일강하고도 우량함으로 결코부작용이나 구감이나거나 하는일이업다

구、균을죽이는 힘이강하고 독을내모는 작용이강대함으로 치료하는 기간이아조속합니다 (治療短期間) 일주일이면 대효가남니다

다음가튼증세에 쓰시오 남녀간 국부가 헐고、좁쌀가티도든분、몸이가려옵고 여기저기 종기가나는분、눈이 희미하고이가(齒)솟는분、얼골에 여드름가티 마니 나는분머리가 빠지고 코가허는분 팔다리가 쑤시고저리고등창이러진분 태독、창독、습독、양매독、선천매독、감창、일절 매독성제중

일각의지체가 십년의후회

신성당에서책임지고드리오니 곳쓰시오

꼭주의하여야할일

약만전문으로하는약전문회사의약이일심전력(全力)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는고로 효력이제일 임니다 무슨 회사약품부니 무슨상점이니 하는데서 파는것은 약이전문이아닌고로 약효가실하다고 할수업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의약학(科學과醫藥學)이 제일 발달된 선진국의 약품을 즉접 수입하는 약이조흔약이고갑도싸읍니다 조선안에서 바더서파는것은 빗싸고 무효한 무명품이 만습니다 주의하서야함니다 좀 잘생각하여 보시오、또요지음 되지못한 약을 가지고별별수단을 다부려광고 하는자들이만으니 주의하시오신성당을모방하고자하는광고에 속지마시오、장담하고절대보증하고드리는약은신성당박게 업습니다

支社長大募集 (大特典附) 規定書郵送

漢藥도具備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 第一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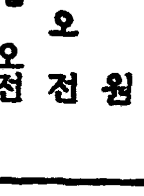
資本金百萬圓 朝鮮第一가는 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벽돌집

ケンオー 켄오ㅣ 元王 本舖 鮮滿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光化門一〇七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西大門第二號光化門第四五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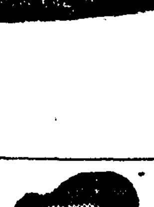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잇는 병인대 대단히괴롭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홀문에 큰구멍이뚤니식세식난다 보통수술하는니 단근치을하는니 상약을하는니 하나 근본적으로내치지는못한다 치질의 병균을 속으로 업새지아니하면 다시재발이나서 도진다 엥구루는홀문에 넣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 편리하고효력이강한약인대 이약을너면 약이녹아퍼저서 기피든독에 신효하다 암치질속치질피나고 고롭나는치질 가려웁고 아픈치질 탈항증에 잘듯습니다 약갑 중한데는 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 삼원분을쓰시오

속병 체증엔 겡오ㅣ가제일

누구나 체증이잇는대 잘체하고구미업고 끌끌하고 신트림하고 배아프고 설사하고가슴이쓰리고 생목이올나오고배가부굴부굴하고 박기가 잣고하면 체증이다 그것안고치면 즉사한다 맥켜는판겨도 곳뚤는것이 겡오뿐이다 가슴아리、속병、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엇지두려웁지 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가지싸고일시적인위장약을써서 습관성으로 중독이되여항상약을떼지못하고변하여 로임생을맛치는일이잇다 겡오ㅣ(KENGO)는 약효위대하야일시적이아니고 비위를보하고 위장의근본조직을다시 소생식히고 소화를잘식히는세가지작용이잇다 그럼으로 세계에서유명한『회쑈ㅣ』제가만히들고 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서 리상적(理想的)효력을발휘한 위장약이다 약가(價)도 다른약보다 만흐나 병이잘낫고 몸을보하야 살이찌고 음식을 맛이게먹게되니 도리혀갑지 아니한고명한 약입니다 위장의오른일수입분에일원자리『겡오ㅣ』박게도업스나약효가 대단신효한 까닭입니다、수십년된체적이한제에효력을보앗스니삼십사봉사약이라는감사장까지오는일이잇습니다 별약을써도 신통치못하야고통하시는분은꼭한재써보시오확만족하리다 약가일원고엔오원 중증엔삼원 경증엔이원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병이심하면 오원분을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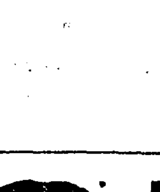


해소 기침엔 에치세ㅣ가제일

사람이생명이 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대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명에판계가된다。

해소、기침、담 천촉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감기로기침을하야도독이아푸고 끌이쏘다지는것갓고기운이탈진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 오래고생하면 갈수록하는것이다 심하면제일무서운 폐병으로변하기쉽고폐염이되여위급한일도잇다

신성당명약『에치세ㅣ』(EOHIPSE)는호흡기관을 유력하게하고담을삭히고 기침을진정식히고 열증을 거두게함으로 수십년된해소、천촉증에도 효력을엇는명약임으로 보통기침병은 며칠안써도효력이 잇다 호흡기병으로해소、천촉、만성기관지가다루、급성기관지가다루、경해、기관지확장、백일해、등에신효합니다 때벼기찬에도 조속 약값 완고중에 오원 중증에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당일로보내드리오。약은화약인대불약보다 몃배나 더조습니다 병이좀심하면 오원분을쓰시오。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세ㅣ(NAOPER)가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 발명약제 가만히드렷습니다

폐병은 난치의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데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야다 입때까지는 흰부의균만죽이라고드렷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나한편으로 몸도보하고잡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즉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종래에는 이삼작용을 시키는데 여러가지로 애를써다제일약과음식과일과 ... 대로안되엿다그런대이여러가지작용을일시에 다하는참신효한약을 발명하엿다 즉 삼기의중병으로 고통하는환자도 이약을 먹기시작하야 단기간에대효를본 참신기한약이다 이러한자신이 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과치료를하야도안나어 고통하는분은일시라도속히『나오뻬ㅣ』를꼭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 고혈담을뱃고 피를 토하고숨이차고원기업고가슴이아푸고 엽구리가결니고수족이찬분들은쓰시오 (약갑)삼기용이십원 이기용십원 초기용오원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보양을 젊어지는약 가이자ㅣ(KAIZER)가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드린대신 발명한약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수명이 잇스나 정력이 쇠약하야 오래 못산다 원기가왕성하야 하고십흔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 잇게하여야한다 새로 신발명한 가이자ㅣ는신체의쇠약한 조직을 다시 소생시키는 보음보양젊어지는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하고 정력을 씩씩하게하는 명약이다 화류병을 알엇든지 과ㅇ파로 하엿든지 선천후천으로 몸이약한분 속히되고패감업는분 음위 신경쇠약한분은 속히 가이자ㅣ를 한제만 꼭쓰시오 약가중증 이십원 보통용십원、경한데오원 약은 환약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증세가좀심하면 이십원짜리를 쓰시오

림질 대하증 냉병엔 구로벨(KUROBEL)이제일

남녀 만급성림질 부인의백대하증 남녀냉병 오좀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 하혈등으로별별치료를 다하야보고 별별약을 써도무효하야 돈만버리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시고 제일먼저 대신발명된 구로벨(Kurobel) 구로벨가치 신속한 효험을보신분들의 말삼이오며 확실한 자신을엇고 장담하오니 곳쓰시오 다음가튼 증세의분은 쓰시오 국부에서 고름이나오고 알흐고 쓰시고 제리고아리고 혹괴도나오고 보고 소변이자지고 안나오고 조금씩나오고 힘이들고그러하다가며칠안되면 고름이조금씩나오고안아프다 이것이월만성이다 이만성은고치기어렵다 만성일수록 약을빗산것을써야한다 (약가)완고악성에 십오원 성기라 제중에 구원 전염된지 며칠안된 보통증세에 오원 방송료선금 십오전 대금인환삽십오전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십오원짜리가 조습니다

한번만걸리면 고질되기쉬운천식

멀정하다가도 갑자기발작된다 정신채릴「삼출성체질」

천식(喘息)을 한번앓은사람이 흔히앓기되지가다투에걸리는데 어린사람은 날세가치워지면 천식이발작합니다。

이병은 한번만 발작하면 작고계속되여서 점점중태에빠지는것입니다。

대체천식이라하는 병은갑작으로 이러나는호흡곤난입니다。평소에는 아모러치도안튼사람이 발작가든데 호흡이곤난해저서 마시여드리는 공기는적고토해내는공기는많하서 괴로움를듯이 야릇한소리가나며 흉은고양이처럼 끄르르끄르르목구녕이우는것입니다 호흡이곤난하야 누어잇을수 업스므로일어나안저 지내게됩니다。

얼굴은 [illegible]과 수족끗은 자주빛으로 변하야 대단히괴로워합니다 이천식발작이 가벼운때에는 치료만잘하면 곳낫습니다만 재발되기쉬우므로 심해지면수일동안이나이것으로 괴로워하게됩니다。

보통의천식은 기관지천식이라하야 그원인은 기관지점막(粘膜)의 분비가심하야저서 이러나는것과기관지주위의륜상(輪狀)의근육이 병적으로흥분되여 근육이너무 주러드는까닭에 기관지의내강(內腔)이좁아저서 일어나는것이잇습니다 이러한까닭에 드리키쉬는 호흡은그냥되여도 부러내는 호흡이 곤난해지는것입니다 이근육이 병적으로흥분되는것은 근육운동을 지배하고잇는 미주신경(迷走神經)이 병적으로긴장하며 흥분되는까닭입니다

기관지천식에 걸리기쉬운 사람은 일반으로 삼출성체질(滲出性體質)의사람입니다

이체질의사람은 피부가약하고 습진(濕疹)과마진(麻疹)에걸립니다

그리고천식은 유전되기쉬운것입니다

천식은 그원인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구별할수잇는데 코와인후(咽喉)의점막(粘膜)이 허러서 일어나는것을비성천식(鼻性喘息)이라하고 원래이 [illegible]은 위천식(胃喘息)이라고 합니다 부인네는자궁의 내생식기의 병으로 흔히이따 천식을 이르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궁성천식(子宮性喘息)이라고합니다。

이밖게 요독성 천식이라 멎지 당뇨병성 천식(糖尿病性喘息)이라는 [illegible]가튼것이 잇습니다

어떠한 천식이라도 그원인되는병을 곳치지안흐면안됩니다

천식은 발작시에는 대단히 괴로우나 그것이지나면 아모러치도 안흔것처럼 좋어지스므로 발작이 이러나지안흘때는 조섭을 잘못하기때문에 갑작이 재발되게됩니다 신경질이며 피부의저항력이약한 삼출성체질은 그체질을 개선시키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일즉자고 일즉이러나며 냉수마찰로 피부의저항력을 도우지안흐면 안됩니다 천식에제일해로운것은 술과담배입니다。담배는 더욱조치못합니다 담배를끈치지안흐면천식은 낫지안습니다 니코틴이작고기관지근육을 흥분시키여 기관지경련을 재촉시키기때문입니다。

코와인후가 나뿐사람이나 편도선비대(扁桃腺肥大)가 잇는사람은 이것을 수술하지안흐면 잘낫지않습니다 부인네의병이잇는이는그것을치료하지안흐면 천식은 낫지안습니다

위가나뿐사람은 채식을하고 지방이적은것을 취하도록하며 자극성의식물을 피할것입니다 천식환자에게는 거처하는주택도관계가 만습니다

일광이잘들며 건조한집이 안이면안됩니다 습기가잇는 곳이라던지 [illegible]한곳에서는 반도시 발작합니다 발작했슬때의치료법은 실신을안정시키고 실내의공기를 맑게하며 [illegible] 환기를 게을리하지 말도록하십시요 발작을완화하는 약으로는 「모르히네」나「아도레나린」이나「아트로핀」가튼것이잇스나 모다 극약(劇藥)이므로 잘못쓰면 큰일납니다。산소흡입이라던지 아스마구(?)가튼것도 잇습니다

家庭

찬"바"람과미용

얼골이퍼러케되는사람에게는 연지칠하는데 묘리를

몸이치운날 바깟출입을하는데는 화장도 보통때보다 화려하고 생생하게보이도록 하십시요 빰이어려서 자주빗으로변하던지 입술이검게 변하야지는것은 늙어보이며 보기흉한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장으로 이것을감추도록하십시요

연지는 얼굴에따라서 칠하되 얼굴이홍분되기쉽고 그만붉어지는사람이나 빰에괴가어러서 자주빗치되기쉬운때는 연지빗으로할수잇는대로 여튼것이조습니다

얼굴이큼직하며 어우운사람은 밝은「연지」를바르도록 하는것이조습니다

얼골이 둥글고 명랑해보이는사람은 오렌지가 적당합니다。

연지비출 가리는것은 대단히어려운일로서 흔히 맛지안는빗갈을 가지고 되는대로 바르는 사람이 잇습니다

위선 파우더를 잘시처서 맑게한다음 크림을 엷게바르고 수건으로크림을 솔처 닥거버린뒤에 화장수를 조금발러서 두드립니다

이것이 끗나거든 연지를 빰에칠하되 광대뼈의 제일노픈곳을 중심으로 퍼서바르고 그우로 파프로 바릅니다

이러케하면 광대뼈의 노픈것이 그다지 드러나지안습니다

가루분을 바르고나서는 베니싱크림을 손바닥에 펴서바르되 무질러바르지말고 가볍다 붓치듯이 바르시요 이러케하야도 분이 지어졌든가 잇스니만약지어지거든 다시바르십시요

이러케 한뒤에 연지가 히미하거든 또한번칠하도록 하십시요 그다음에는 눈섭이나 속눈섭에보흔 분을털어버리고 눈섭을 그은다음 루-쥬를 바르면 모든게다된것입니다。

루-쥬는 연지빗과 가튼것이조코 입술이 두터운사람은 빗을 드러나지안케 바르고 입술이 조고마코 엷은사람은 드러나게 하는것이조습니다 먼니가 난사람은 웃입술은진하게칠하고 그와반대로 인중이긴사람은 웃입술을진하게칠하는것이조습니다

보통때는 눈과눈섭사이에 연지를 조금칠하는것은 결점이며 코대를 따라서 화하게 연지를 바르는것도 무대배우와 달라서 조치못합니다

대서양횡단 하로에될

기원일천사백구십이년의 옛날콜놈버스가 서반아의「파로스」를떠나서 칠십일만에 아메리카의 신대륙을발견하엿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백사십년이 지난지금에는 그항로(航路)를이십사시간에돌파하라는 계획을세우고잇습니다 벌서 미국과 영국회사가 내년여름부터 실시하라는계획인데 포루갈의「리스본」과 뉴-욕을연결시키는 대서양항로를일주야에 련락시키라는것인데 여기에 날너다닐비행기는 [illegible] 날개의기리 백구십척 [illegible] 오십인의 손님과 [illegible]의 짐을 실러가지고 시속이백마일을 내랴는것입니다 이것이실시된다면 큰외제꺼리가되리라고합니다。

요새흔히걸리는 어린애의폐염

까닥잘못하면일납니다 ②

本讀니머어

小兒科醫師 趙漢英

다음에는 폐염의치료에대해서말슴하겟습니다。

폐염에 대한약품으로는 심장이 약해지는것을 막는약을 먹이고주사를해주며 가래가삭을 약을먹이며 폐염에 특효가잇다는 포도당 또는그외의 다른약품을 주사를해줍니다 그러나 폐염의치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몸을편하게 안정하게하고 간호를 잘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병에든지 그러치만은 더욱 폐염에대해서는 간호를잘해주고 못해주는데따라서 병의경과에 큰차이가 잇는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폐염이라도 간호를 잘하지못해서 [illegible] 수도잇고 [illegible]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떠한주의가 필요할가를 말슴하겟습니다

이병이 호흡기의병이니만치 압흔아이가잇는방에 대해서 주의해야하겟습니다。될수잇는대로 [illegible] 방이차다든가 또는 너무더웁게하면안됩니다。대개의 가정에서는 폐염이라하면 방을 펄펄끌케하는데 이것은 도로혀 해롭습니다。다시말슴하면 몸에 열이잇서서 몸이더운데다가 방안이 몹시더웁다면 숨만더차고 괴롭기만합니다。또방안의온도의차이가 심해도 병에 몹시해로우니 방안의공기가 조금도 보통때보다 차지안토록하고 또는 적당한온도가잇도록해서 방안의공기가 깨끗하도록 해야하겟습니다。

가정조치안흔곳에서 방안에 불수건을 여러개만드러서 걸어두든지 또는화로에 물을끄려서 김이 조금식 나도록하면됩니다。문틈에어 아이를 뉘어서 찬바람이 몸에닷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치만 찬바람이 못드러오게한다고 문틈까지 봉해서 방안의공기가 못되게하면 도로혀 해로운것입니다。박갓공기가 조금식은늘드러와서 방안의공기가 깨끗하게해야합니다。

또한가지 특별히 주의할것은 알는아이방안에서 담배를피우는것을절대로 엄금해야할것입니다 보통시에라도 아이가잇는방에서 담배연기를내는것은 조치안흔 일이지만 매우괴로워하는데도 불고하고 담배연기를낸다는것은 병의경과를나부게만 하는것입니다

가튼리유로 방안에 몬지가나지안토록하야겟습니다。또는특히알른아이의 영양에대해서 주의해야합니다。이병이 소화기의병이 아니고 호흡기의병이니까 음식물은 충분히주어야합니다。젓먹이아이라면 충분히젓을먹도록하고 큰아이이면 설사하지안켓도로 소화가잘될것이면 먹고십허하는대로 무엇이든지 먹도록해서 원기를일치안토록해야합니다。열이잇스니까 미음이나 죽가튼것만을 주어야겟다고하는 잘못생각하는것입니다。미음이나 죽가튼것만 조금식주면 아이의 영양이 나버저서 병과도조치안습니다。배비탕,보리차,홍차,과즙가 우유가튼음료(飮料)를만히먹도록해야 병의경과가 매우 조화집니다。

우리차지

애기옹아리

애기가짓거리는것은
어머니박게 아라듯는
이가업세요。음마음마
따따ー따소리도 배고
풀때,몸괴로울때,못
맛당할때 짓이낫슬때
에다 다르대요。내얼
끌할킨것은 정말미워
서그랫슬까。
(京城사람박순동)

花冠 【130】

長篇小說 李泰俊作 金奎澤畵

아득한봄(十四)

숙철수령은 하나만이 아니엇다。오만원짜 동무들것을 쓰고 수정도장을 내여 찍더니 째저내엿다。

「무장에 썻습니다 한날 성은거고 하난 조선은행권입니다 언제던지 가 차즈실수 잇습니다」

하면서 무장을 한데 포개여 반에 접더니 봉투에 너허 내민다。

「네……」

모기소리만치 대답만 나갈년 얼른 손이 나가지지 안는다。그러나 빨히 건너다보는 배일현의 안경이 어째 무섭기도 해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겟습니다」

굴와이듯 치하를하고 소절수봉투를 펠치는 손으로 이끄러왓다。그리고 곳 이러섯다。

「벌서 가시려구요?」

「네」

「동옥씨?」

「……」

「현애하신 동옥씨 그만 갈곤 게시구 바로신을 안납니다」

그러나 배일현의 이소리가 마저기 바르게 동옥은 [illegible] 일현의진을 나서고말앗다。

하늘은 변하나 보하지 안는다。동옥이가 다시 빠고다공원에 드러섯때는 이슬비조차 또나리기 시작한다。어둠과 비에 젓는 시커먼 벽양나무그늘 아래에는 인철이가 찌저진 우산을 밧고 기다리고 잇섯다。

동옥은 아이 바치어 그의아페 선채 한참이나 아무말도 내지 못한다。

「좀 안즐가요?」

동옥은 자기우산은 접고 인철의 지우산 속으로 가치안는다。

「도업이란 그리 단순한건 아닌가봅니다」

인철은 동옥의 당한일을 다 본드시 말한다。

일현은 문을 막어서는것이다。

「……」

「전 십만원의 돈보다 더 드리고시픈게 잇습니다 이걸합께 바다주서야합니다」

하면서 조끼호주머니에서 금강석이 번쩍하는 반지를 꺼내는 것이다。

「네?」

「제가 오늘을 기다리지가 오랫니다」

하면서 일현은 반지채로 주려는것이 아니라 아조 끼워주려고, 또 동옥이가 오래 허락할줄을 밋는듯이 서슴지안코 썩 동옥의 왼편손을 잡는것이다。

「네?」

동옥은 손을 뿌리치며 홱 돌려선다。

「그럼 어디 무조건이세요? 간섭 안한다구……」

「……」

「몬으루 눈을 서실 작정이신가요? 비열인!」

시뻘거턴 배일현의 얼굴은 하ー야케 질린다。저쪽의 점잉을 보는 동옥의 얼굴도 하ー야케 질린다。소절수봉투를 든 손이 과연히를 떨린다。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원산서 말씀하신것처럼 무조건 불편심으로 주신건 업스신지?」

「물론 다른 조건은 업습니다」

「어떠케 쓰시던 간섭치 안켓습니다。그러치만 이돈이 내몬인 이상 내게서 나갈때면은 가치가 잇서 나가야겟습니다。난 십만원을 휴지로버리는건 아니엿지다」

「……」

라디오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온다。어떤 녀자인지 독창인데 나중에 한가지는「솔베지의노래」엿다。

「솔베지의노래! 솔은 처녀안해 솔베지의노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양한 남자를 일생을 두고 기다리는 솔베지의 노래……」

동옥은 이러케 혼자 생각하고 새로운 눈물이 쭈르르 흐른다。안타까움을 견디다 못해 아이처럼 인철에게 쓰러진다。

「동옥씨?」

「당신보단…내가 먼저야요…」

인철은 동옥의말이 사랑을 품기가 먼저엿단 뜻인줄을 얼른 알아듯는다。대답대신 동옥을 힘을 안어본다。

「오! 얼마나 우린 힘뎅어립니까?」

인철은 선양과 가티 동옥의 입술을 입술에 느껴보자 놀라는 팔처럼 뛰여 일어난다。

「자! 인전 또 헤여저야 합니다 우리게 봄은 아직 아득합니다!」

동옥도 일어섯다。

「인뽕이 걱정은 마세요」

「네 다 압니다」

「어서 가세요 그럼」

「어서 가시지요」

「먼저 가시랏니까……」

「자 그럼 갑니다」

하고 인철은 찌저진우산을 휘돌르면서 흔적을 향해 먼저 뛰여나간다。

一끗一

丁丑十二月十六日夜脫稿

國產 京染交織神風錦紗 壹反宛 三千反贈呈

어서이豪華賞品을뽑아주십시요

(特等)……國產京染交織神風錦紗 一反宛 參千本

(國)號……クラブ健康化粧セット 壹函宛 三萬六千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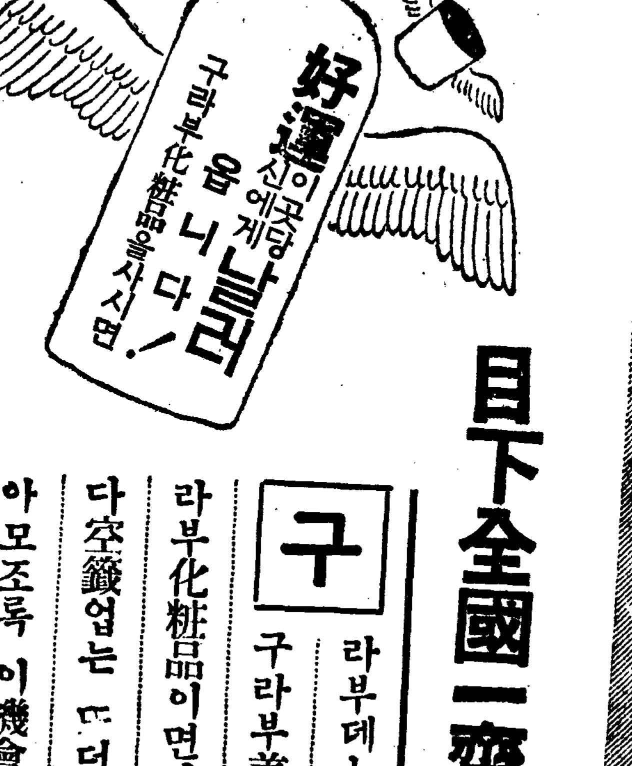
(產)號……愛國纖維ステープルファイバー製 日の丸國旗 壹枚宛 三萬六千本

(愛)號……皇軍慰問用品セット 壹組宛 三萬六千本

(用)號……カテイ洗粉(布袋入) クラブ美身粉白粉(普及瓶) クラブ乳液(普及瓶) 어느거나 一個式 五十四萬本

(等)外……中將クラブ齒磨(試用袋) クラブクリーム(試用袋) クラブプラターム(試用瓶) クラブ美の素石鹸(小形) 어느거나 一個式 殘品全部

特等券을뽑으신분은…… 住所 姓名 年齡을記入하시고 特等券을 本舖로보내주시면 適當한것으로보내드리겟습니다



目下全國一齊開催中十二月末日까지

구라부데ー

포스타ー를揭出한商店에서、구라부乳液、구라부美身크림、구라부白粉、구라부齒磨其他구라부化粧品이면、엇던物品이나、사시는분에게 五十錢마다空籤업는 ㄸ더보면 好運을아는福引券一枚式드립니다、아모조록 이機會에이好運을붓잡어주소서

クラブ化粧品福引付大賣出し クラブデー

ホルモンで健康化粧になる

クラブ美身クリーム

アレ止め・若返り・白粉下に

貧谷兄을哭함

咸 尙 勳

貧谷兄! 兄은 果然 죽엇는가? 訃音을 보던 兄의 生前의 性格이 分明하니 兄은 果然 죽엇는가보다. 月前 兄의 訪問으로부터 兄이 病席에 누어 回年하기 어려우리란 말을 들엇스나 아직 世上을 나히는 아니고, 그後 兄의 容態은부터 [illegible] 부치는데 아무 消息이 업는것을 보면 關係한 不가보다는 말을 듯고 적이 安心하얏더니 突然 兄의 訃音을 보니 實로 꿈인가 生時인가 한다.

나는 兄의 訃報를 받고 [illegible]할수업는 슬픈 생각이 솟아 올음을 깨달앗노라. 첫재 兄은 [illegible]을 마그라 떠나면서 [illegible]어도 [illegible]에가서 [illegible]겟다는 壯한 말을하고 [illegible]로 나에게 [illegible]을 [illegible]케한 나는 그것조차 [illegible]하지 못하엿다. 나는 그것이 몹시 未安하고 생각하여 언제 다시 맛나 이것을 謝하고 그대신 兄을 쉬지 [illegible] 기다렷섯다. 그러나 兄은 이미 갓고나 아 [illegible]하리만한 [illegible]에 잇지[illegible]거니와 그[illegible]를 다시인제 [illegible]가 잇겟는가.

◇

또 兄이 얼마간 苦學하고 [illegible]어 [illegible]것도 오직 世上이 어떠케되어가는가를 보고저 함이 아니엇든가. 그런데 이世上은 [illegible] 그어떤方[illegible]으로 갈지 갈피를 모를 [illegible]에 빠저잇다. 兄의 [illegible]하는 그[illegible]에는 [illegible]이 [illegible]거리 [illegible]고 [illegible]의 [illegible]는 날로 [illegible]해갓다. 이 [illegible]해가는 [illegible]의 끄슬 구경치못하고 눈감는 兄의 心情이야 어찌하얏스랴!

◇

貧谷兄! 나는 一生에 가장 [illegible]한 때를 두번 當햇노라. 하나는 나의 先親의 死요 하나는 兄의 訃音이다. 兄도 아다시피 나는 父親의 [illegible]을 [illegible] 나오고 [illegible]을 하고 [illegible]지 어디가젓습니다. 그러나 七年이 넘은 아버지를 부터 [illegible] 것이 업시 살다가 [illegible]히 [illegible] 저 [illegible] 대접하지못하고 [illegible]에서 [illegible]이 [illegible] 빗고 나려가 [illegible]하고마니 [illegible] [illegible]가 어데잇소? 그처럼 기다리든 [illegible]은 그때의 [illegible], 어머니의 [illegible]을 [illegible] 七旬甲은 아부지의 [illegible]로 永永노치고 말앗구려. 나는 그때 실컷 울엇습니다. 子欲養而親不待는 그때 비로소 切實히 늣긴 말입니다.

◇

이제 兄의 訃音을 接하고 [illegible]로 그때와 가튼 感[illegible]가 나습니다. [illegible]가 [illegible]와 [illegible]을 [illegible]이야 오도[illegible]한 [illegible] [illegible]는 기다리 [illegible]이엿다지 안는다. 兄은그간 나를 [illegible] 잇서[illegible] 하속히 생각하얏스리라 그러나나 [illegible]는 兄을 그때 도[illegible]한 일로 [illegible]어섯고 兄의 [illegible]한 [illegible]하야 [illegible]는 나로서 兄을 [illegible]的 [illegible]에 [illegible]하고싶지안어 나의 [illegible]남을 구하여 [illegible] 안한 것이엇다.

◇

생각하면 兄의 一生은 潔白을 [illegible] [illegible]이엇다. 兄은 [illegible]와 [illegible]을 [illegible]거니와 兄은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illegible]俗을 [illegible]지 [illegible]의生活이엇섯다. [illegible]에 附치 안코、金錢에 [illegible]하지안코 오히 潔白을 [illegible]하얀 死境에 來往하얏다. 潔白을 [illegible]하야 老父母도 [illegible]보지안엇스니 兄의心[illegible]이야 오히려[illegible] [illegible]이엇다. 兄이 [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이 [illegible]이었다. [illegible]人共[illegible]에서 [illegible] 누어 잇슬것이다. 아마 내가 [illegible]을 가서 兄의무덤을 찻기前까지는 兄의 얼골은 [illegible]하지 못할것이다. 아니저世上에 가서가 아니면 [illegible]할것이다. 그대는그대의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에 [illegible]고 그대의 [illegible] 三兄[illegible]을 [illegible]之 [illegible]에두고 그대의 [illegible]을 [illegible]에다두고 왜 먼저 갓는가. 밤이 기[illegible]사락 그대의생각은 더욱가 늘고 길어간다.

(十二月十六日夜 [illegible]에서)

學藝

文學의 背理·悖德 (五)

科學과 다른 그 本質의 認識

白 鐵

이러한人物의性格에 對하야 一一히 그意味를 吟味할餘暇가업거니와 그中, 도스트엡스키-의主人公에 癲癇病者가만타는理由로는 흔히作者自身이 癲癇患者엿다는 便宜的說明이 流行한다. 例컨대 病理的으로 도스트엡스키-를 研究한 『세가로프』氏와가튼 이의主張이다 거기對해서는 우리는勿論 티人슈教授의 말과 가티 『도스트엡스키-가 그의固有의病을 通하야 病的精神狀態의分析에對한理解와 經驗을 가젓다』는事實을是認한다 그러나 이것은 偶然의一致요 決코同病者가 主人公으로 選擇된全理由는 아닌것이다 그보다도 도스트엡스키-의 藝術에잇서 背理의世界를 表現할異常한人間의代表者로서 癲癇病者는極히 必要했든때문이 아닐까? 웨 그러냐하면 그人間은 精神狀態에잇서 一般論理에 드러맛지안는 아브노멀한狀態를 가진人間이며 더구나 그病이 突發하기直前의瞬間의狀態는 美妙한것이엇기때문이다

도스토엡스키-가 그와가티 平凡하고 異常한 人物을 通하야 人間의 深淵世界를 더듬엇고, 그深淵의世界에依하야 그와가티도 背理의世界를 [illegible]하는 그의文學精神이야말로 根本的으로 그것을要求한 한가지의 文學的態度가잇는듯하다 나의 記憶에 依하면 도스트엡스키-의 이文學態度에對해서는 누구나 言及한사람이 업는것가튼데 그것은 平凡과 中庸을 敵視로 憎惡하는 精神이다

도스트엡스키-는『스타부긴의告白』其他數處에서 默視錄의 다음파가튼 章句를 鄭重한論題로서 選擇한 事實이잇는데 그것은――『或은 미지근(溫)한것보다는 차라리 찬것을사랑한다』는 思想이다 『나는 네가 차지도안코덥지도안타는것을 네행위에서알고 나는네가 차든가 덥든가하기를 소원한다 네가 만일 미지근할뿐이요 차지도안코 덥지도안흠 때문에 나는 너를입에서 吐해버리고저한다』

차지도안코 덥지도안흔 미지근하기때문에 그것을吐해버리는 態度는 나의생각에依하면 도스트엡스키-文學에 基本的인意味를가진것인데 그章句를 取한文學精神이란 結局 中庸을버리고 하나의 極端을 愛好하는精神이다 平凡과 [illegible]을 버리고 中庸을버리고 非凡과 異常과 絶景과深淵을사랑하는絶對또는 極端主義의精神이다 그리고 도스트엡스키-가 平凡과中庸에 文學의精神을 許하지안흔것은 [illegible]것도어니와 그가 合理와 數學的인 世界에만 作品의世界를許하지안흔 精神에서오는文學態度임은 勿論이다 웨 그러냐하면 近代의 그合理主義는 나의解釋에依할때에는 하나의中庸主義로밧게 볼道理가업는때문이다

그러나 文學에잇서 中庸과凡庸을排擊하는것은 도스트엡스키-만이 取한特殊한態度가아니오 도스트엡스키-와가티 自己意識이强한作家(도스트엡스키-)좀 自身의『强烈한意識力의人間』좀더一般的으로말하야 人間에 對해서 特殊한研究와 特別한興味와 [illegible]한愛着을가진 文學者로서는不得已取하지안흘수업는 하나의運命的인 態度인것이다 그意味에서는 [illegible]가 平[illegible] 行路를 [illegible]하고 도스트엡스키-가 中間을排擊하고 지-드가 [illegible]主義를 [illegible]하는것은 그들의一時的인 短片的인 意見인것보다도 特히 人間을探求한 文學者들로서 共通的인 性格이요 그들의傳統的인意識이아니엇슬가? 여기서나는 다시 모든 浪漫主義者들이 極端을誇張한 [illegible]한文學事實을 附加하지안는다. 그들은 人間의 作品과精神的傾向을 沈潛히研究하고 廣濶하게 探求한것보다는 一時的인興奮에서오는 感傷的인 誇張의例가 만키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illegible]을 [illegible]는것은 하야 다시 도스트엡스키-文學의 限界를버리거니와 그[illegible]을 愛好하는態度가 적어도 一部의文學者에게서 肯定할수잇는 共通的態度요 그文學態度[illegible] 取하지안흘수업는 一種의 運命的態度라는것은 文學者의 그런態度의 背後에 나는 한가지의一層根本的인 立場을豫想하기때문이다 文學者의 私的行爲나 作品上의 모든表情과 態度의背後에는 그一切를 [illegible]히 [illegible]하고 [illegible]하는 一定한姿勢가 決定되여잇는데 그것은 文學者가 人間으로서 自己의品性과 精神的傾向을 不斷히 反省하는自修的인 努力과 克己的인 決意에依하야 陶冶된 하나의 個性的인 人格的인 姿勢다 文學者는 그姿勢를 固持함으로써 自己의文學世界를 統一하며 文學者가 [illegible]하는 一切의 對象에 臨할때의 判斷을 左右하는 基準을 사는것이다 우리들은 文學者의 그主體的인姿勢를 [illegible]하야 普通 文學의『모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文學者가 『모랄』을가지고 作品對象에 臨할때의 判斷을 내리는것은 [illegible] 主體的인 獨判에서 決定되는 意味는아니다 本來 文學者가 그自修的인克己的인努力으로 모여가는것은 絶粹한主體의 意味가아니라 그自體가 하나의 [illegible]的인 [illegible]에依하야 [illegible] 考察를 要求하는것일뿐아니라 本來의根源에잇서 모랄은人間을探求하는 文學者의모랄이며 그모랄은『첫재 性質이一定한 社會의人間을 考察의對象으로하야 그習俗과精神的傾向을 論究하는것』이며『그들재性質이 人間의心理研究 心理分析에依하야 世態人情의 機微를探求하며 그社會의 思想[illegible]을 是正하는것』일진대 그것은 하나의普遍的인 價値의判斷이되여야할것이다 그러기에『그 셋재性質로서 모랄은 內省的인道德律과 旣成된精神的權威에對해서 새롭은人間의 依據할倫理를 樹立하려는 積極的努力』이될것이다! (以上引用句는 [illegible]文藝辭典 모랄리스트[illegible]參照)

漢詩

桐岡考選

紅葉 三等之七

京城 車[illegible] 任甲淳

一夜霜風動九垠
朝來紅葉畵圖新
樹木渤成花世界
江山更作錦城
誰駐車輪聊玩賞
我將詩句苦吟呻
天公似慰悲秋士
故借枝枝分外春

彫刻家李國銓君 構造社展入選

李國銓君은 市內某百貨店에勤務하면서 彫刻을 工夫하다가그方面으로 精進코자 今春東京으로건너가 [illegible]中이대 지난十一月初旬 上野에서 열리는 構造社展에 그의出品『[illegible]』이 入選되엇다。이番 構造社展에 出品된彫刻은 總二百三十餘點이나 그中에서 入選된 作品은 겨우二十一點에不過하다고한다。

新刊紹介

▲宗敎美術카렌다 發行所 大邱府南城町一三七 大邱基督敎會編 振替京城七八三三番 定價三十錢

▲基督敎報 第三十八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朝鮮鑛區一覽 昭和十二年七月一日現在 發行所 京城府南米倉町四 朝鮮鑛業會 振替京城四七〇六番 定價二圓 送料二十四錢

▲朝鮮統計時報 第八號 人口動態調査特輯 發行所 朝鮮總督官房文書課內 朝鮮統計協會 振替京城二四四八八番 定價十五錢

▲更生 十二月號 發行所 廣島[illegible]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illegible]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三番 定價十五錢

▲勤勞報國 第三十四號(月二回) 發行所 平壤府[illegible]昌里八五 [illegible]內 平壤勤勞會報社 振替京城二六七九四番 定價一部五錢

▲新榮朝鮮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三丁目四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二九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illegible]知識 第一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八七 京城藥學研究會 振替京城八三六七番 定價[illegible]

▲朝鮮農會[illegible]報 第九十九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illegible]部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六錢

▲朝光 新年特大號(內容)新年새希望의[illegible]相、朝鮮歷代詩選、戊寅史上高麗太祖、흥광이座談會、自歡王虎家文論、나의十年計劃 金瓊根外諸氏 時事時論、新春經濟展望外數編、모-차르트의生涯와藝術、名映畵에나타난[illegible]九題、削[illegible]과學生、一月의詩歌、虎外數篇、新年創作陣、森林外數篇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五十錢 送料本社負擔 冊別二大附錄無料進呈 라이브 [illegible]圖[illegible]先生誕生六百年記念誌

▲靑年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六番 定價十錢

漢詩漫話

唐詩의 모델과 爾後의 沈滯性 (十一)

崔 滄 海

詩經과 楚辭는 數千年間 漢詩(廣義의漢詩)의 中原에서 서로 角逐征戰하고 잇섯다 漢魏以來 五言 七言等의古詩、律詩는 詩經의 直系的變體이고 司馬相如、揚雄의 詞賦諸篇과 賈誼의 鵩鳥賦 弔屈原文과 左思의 三都賦와 陶潛의 歸去來辭 等等 其他 이에 類似한 詞賦와 散文詩는 다 楚辭의 系譜林에 屬한것이며 大漢以來 騈儷文體 卽 四六文體는 楚辭[illegible]의 混血的産物이라 할수잇다 이것은 形式上 대개 區分할것이고 그內容 卽意趣에잇서서는 兩者가 서로 影響하고 서로滲透하야 一定한 範圍를 그어논것은아니나 文學에서 楚辭의 感化는 實로 偉大하엿다

漢詩의 全盛期는 唐의 時代이고 唐의詩人中에는 李太白 杜子美가 그 月桂冠을 서로 다투엇는데 杜詩는 詩經의 嫡傳이라한다면 李는 楚辭의 別派라할수잇다

友人會宿(李詩)

滌蕩千古愁。留連百壺飮。良宵宜且談。皓月未能寢。醉來臥空山。天地卽衾枕。

遊洞庭湖

洞庭西望楚江分。水盡南天不見雲。日落長沙秋色遠。不知何處弔湘君。

春夜喜雨(杜詩)

好雨知時節。當春乃發生。隨風潛入夜。潤物細無聲。野徑雲俱黑。江船火獨明。曉看紅濕處。花重錦官城。

秋興

千家山郭靜朝暉。日日江樓坐翠微。信宿漁人還泛泛。淸秋燕子故飛飛。匡衡抗疏功名薄。劉向傳經心事違。同學少年多不賤。五陵衣馬自輕肥。

例示한 短篇에[illegible]하야서도 兩家의特色을 대개 엿볼수 잇지안는가 더구나 太白은 楚의思想인 老莊의 神仙과 道家의靈魂을 詩의 神韻으로 하니만큼 楚辭의特色을 間接的으로 表現하얏다.

李杜의外에 詩界의代表로서 王維를 빼지안흘수업다 王은 지금의陝西省西安府藍田縣에잇는 輞川別業을 詩人 宋之問에게서 讓受하야 居士的隱逸生活을 經營하면서 道士裴迪과 詩를唱酬하얏스니 그高邁幽寂한 詩境은實로 禪佛의三昧에서 어든것인데 詩經 楚辭의 遺風인 李杜의詩에對立하야 別開一境의地位이 잇지안흘가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返景入深林。復照靑苔上。

過秦如禪師蘭若

無著天親弟與兄。嵩丘蘭若一峰晴。食隨鳴磬巢烏下。行踏空林落葉聲。迸水定侵香案濕。雨花應共石牀平。深洞長松何所有。儼然天竺古先生。

禪佛的要素는 王詩의直觀이 되얏슬뿐아니라 漢詩의 全域에對하야 光輝잇는 新要素를 添加하얏든 것이다 近代 詩宗王漁洋은 李太白을詩仙 杜子美를 詩聖、王摩詰(維의字)을 詩佛이라고 評稱하엿스니 李는道敎 杜는儒敎 王은佛敎를 各其 背景으로하엿슴으로 詩의 思想과傾向이 이三部를 否定할수업는것이다

唐의詩는 그內容에잇서서 六朝以來 浮華한詞藻에對한 反動的要素가 勃起하고 儒、佛、道等 一切寬容하게 待遇하는 唐의政治에 對應하야 詩人文士의 依歸信仰이 比較的自由로웟다 形式에잇서서도 古詩 古歌以外에 新律的組織이 嚴密되야 律詩라는 新詩體를 使用하게되며 이러한 모든條件이 合流되야 前代未聞의 漢詩盛代를 이루게된것이다.

그러나 그後 一千數百年間 宋、元、明、淸을通하야 漢詩는 內容으로나 形式으로나 大體的으로 何等變動을 이르키지못하엿다 宋의性理學과 元의小說文學과 明의擬古派와 淸의考證學風이 各其前代의 思想、文學에對한 反動的遺物을 어느程度까지 表示하얏지만 詩에對하야 新新한內容을 提供하기에 너머나 貧弱하엿슬뿐아니라 形式은 依然히 舊格을 株守하야 唐의모델에 一步도 버서나지못하얏다 蘇東坡의 儒佛合致와 王漁洋의百家集成이 千古에卓越하야 一種異彩를 詩壇에 放揮햇다할수잇지만 結局은 唐의모델에 局限되야 唐의下風에서 低徊하고마럿든것이다

中篇小說

女人命令 【4】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卵島 (四)

숙채는 사다리우에 올나안즌채 손으로 그기운조히조각을 어루만저보앗다. 컬그스름한 감옥[illegible]

[illegible]에 [illegible]얏겟고 [illegible]하는것이 업다.

[illegible]한 [illegible]다며 [illegible]엿다는 어[illegible] 이방속에 이러케하고[illegible] 더[illegible] 네[illegible] 혹시 [illegible]그때그가 [illegible] 그[illegible]가 아니지도 모를것이다. 이방속에 이 어두움――그때 그[illegible]을 [illegible]고 잇는어둠이 신[illegible]한 [illegible]엇다가지금다시 숙채의눈에 [illegible]는 것이 아닌지도 모를것이다.

숙채는 방속에 [illegible]어잇는냄새를 [illegible] 맛다[illegible]. 그러다가 비[illegible]를 [illegible]에 [illegible]어 생각하노라고 [illegible] 허공을 [illegible] 사뭇[illegible] 도시 알[illegible]다 강상이란후리의 이지를 떼어바리기는 불가능한데이라고 생각햇다.

숙채는이방 이천정 그리고 이냄새――이것들은 그때의이야기를그대로 [illegible]노흔 증서(證書)와 가태서 지나간날을 다시 되푸리하지안흘수 업슴을늣겻다.

십년전그때――숙채는 다하면 이섬에 단녀간일이잇다. 그가병으로 약을한첩 질머지고 어섬으로왓슬때다. 숙채는 어머니를 조나서 [illegible]지에오[illegible]기 가저간다고 속이고 장조하[illegible]다지와 고초장한다지를 복거서 가지고 사십리길을 걸어서 어섬으로그를차저왓다.

지금도 또렷이 떠오르는 그방에들어가――방[illegible]어다! 장[illegible] 안어리를 사이에노코마조안젓스나 역시[illegible]한 [illegible]찻지못하야 [illegible]그리고잇슬때 마침 저[illegible]에서 저[illegible]이 작란을 치다.

「저런놈의자――강아지나 남은 저[illegible]지를 [illegible]어노아서 오늘아[illegible]도 여겸 이러케 [illegible]습니다.」

그때 그가원고지를 [illegible]서[illegible]다는것이 [illegible]인 지금 숙채가 처다보고잇는 저 [illegible]한것이다.

「무슨생각으 그라하고잇소? 어방에다는 저기새노흔이잇스니그거 깔아야지 이가방도 지여게드

때의숙채모양은 검정치마에 흰적삼을 바처입고 힌오뽕희를신엇다. 그리고 큰채보에 하아리 두개를 잘끄러서 머리에 이고 방문거름을하든것이 눈에떠오른다.

한낫이 지나서야 여기에이르럿슬때 얼골이 붉엇치달어 감히들어오지못하고 바로 저버드나무뒤에 숨어서서 행여누구의 눈에 떠일가 결쿵집어먹고서잇섯다.

얼마를 지난뒤에야 마즘가든 런들가?」

「네」

「첩사람의 일이란건 모를기라니. 십년전에 애기어머니일나(어린애)적에 여게와다갓겟능기 지금보다시 울술으 잇지일핫겟소. 그래 그때는 무슨일로 왓다갓소?」

「네? 네! 난도깍작 놀낫군요. 저-오라버니가 병꼬치러 여게왓때는데 그때 바로 총각이어찌에잇드군요. 그래서 한번다녀갓지요」

숙채는 무망중 오라버니라고 해노코도 고오라버니라는 오라버니를 또다시쓰게되는것을생각할때 실로감개무량하엿다. 십년전 그때에도 총각이어머니한데 오라버니라고해섯든데그때는 그러케 거짓말을 꾸며대지 안흘수업는 경우엇스나 지금은 무슨까닭으로 여러한거짓말을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랴.

「앙이그래서 여게를아는구만. 곰세그런일이나 잇섯기에 와다갓지 그러쳇이른 무시래 오것소. 그런데 무슨병인지 여재서 조-라는 대처에서 꼿치지안쿠 이런사람살대와서 무슨병을곳치겟소」

「그래도 어런데와서 바다공기도 마시고 햇빗도 쏘이고하면 낫는대요」

「저거좃을보겟소. 바다바람은 쏘이면 병이낫는다이 그래그런지 이러데 사람은 죽해서 병이나는법이업능이. 하기사 언제병치레까지하고는 살아갈수가잇서야지. 생전 약한첩 앙이먹고 죽는사람이 만치비」

「G·갑」과 「最初의接吻」

市內團成社封切

府內 團成社에서는 新築落成三週年記念으로 特別興行을 二十一日부터／一週日間한다는데 프로는 와ー너ー의 超特作인「G·강」과 亦是 同社의 新作「最初의接吻」을封切하기로 되엿다고한다。「G·강」은「팟트·오브라이엔」과「마ー가렛트·린제이」共演이며「最初의接吻」은「진·뮤ー야」의 主演이라고한다

(사진上은「G·강」下는「最初의接吻」)

라디오

二十一日(火曜)

◇午後六時 幼年童話二篇 一、편지 二、獅子할아버지 嚴達鎬
◇同六時三〇分 講演『支那의窮山僻地이야기』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四〇分 講演 昭和十二年回顧(二)『文藝界』 延專敎授 鄭寅燮
◇同八時一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玄石年
◇同八時二〇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篠原正雄
◇同八時五五分 古歌『朴壯士』 崔汝成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大)新日本音樂
◇同六時 (城)合唱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同(自天津)
◇同八時 (甲)俚謠

二十二日(水曜)

◇同八時二〇分 (東)管絃樂
◇同八時五五分 (東)라디오드라마
◇午後〇時〇五分(名) 맨돌린五重奏와獨奏 一、五重奏 (가) 흐르는북숭아 山田耕作作曲 (나) 별자장歌 同 (다) 언덕敎會堂 中野二郎作曲 二、獨奏(기타ー伴奏) (가) 콘덴도메니카 微笑와눈물 지안피에트로作曲 (나) 볼레로 라코作曲 中野二郎
繼續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冬至이야기』 普成高普 黃義敦
◇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吳鳳(讀本卷八、十七課) 二、日と風(讀本卷四、十四課) 梅洞普通學校 四年生 二年生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漢方醫學硏究에對하야』 玄鎬燮
◇同七時四〇分 講演『겨울의山岳美』 梨專 金尙鎔
◇同八時一〇分 室內樂 피아노三重奏曲 第七番 하이드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데라ー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론도·프레스토 城西트리오 피아노 李興烈 빠이올린 洪蘭坡 첼로 金泰灝
◇同八時四〇分 執杖歌 二、달거리 三、제비歌 申海中月 洪笑月
◇同九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瀟湘八景 二、唱劇調 沈淸歌ー皇城올나가는데 吳太石 杖鼓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名)만돌린
◇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四〇分 (東)歌謠
◇同八時五〇分 (東)新朗詠

二十三日(木曜)

◇午後零時五分 古歌 崔秉燁
◇同一時十五分 講演『飮酒의害毒』 醫學博士 金鳴善
◇同六時 齊唱과合唱 一、齊唱 皇太子殿下降誕奉祝歌 二、二部合唱 來れ冬休み 三、齊唱 발굽기 四、齊唱 신기령장수 五、三部合唱 山は富士の嶺 樂泰院普通學校兒童 伴奏 金廟權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十分 經典解說『直指人心見性成佛』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七時四十分 講演『米國外交의基調』 朝鮮日報 韓普容
◇同八時十分 舞臺劇ー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ー ″椿姬″ 第三幕

配役

나니ー느……李白姬
프르ー당스……金愛順
아르망……朴商翊
말그릿드……南宮仙
니쇠드……林榮奎
큐스타보……金滿
듀빠르(아르망父)……徐月影
使者……李一秀

劇團中央舞臺

◇同九時五分(東) 和洋合奏 指揮 延禧年 東洋管絃樂團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琵琶
◇同六時(東) 奉祝歌
◇同六時二五(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 童謠
◇同八時二〇(東) 舞蹈子
◇同八時三五分(東) 講談
◇九時(同) 和洋合奏

國手爭覇譜 (9)

本社獨占

白 任佑植
黑 丁奎春

成敗야어떠하면 苟且偸安은禁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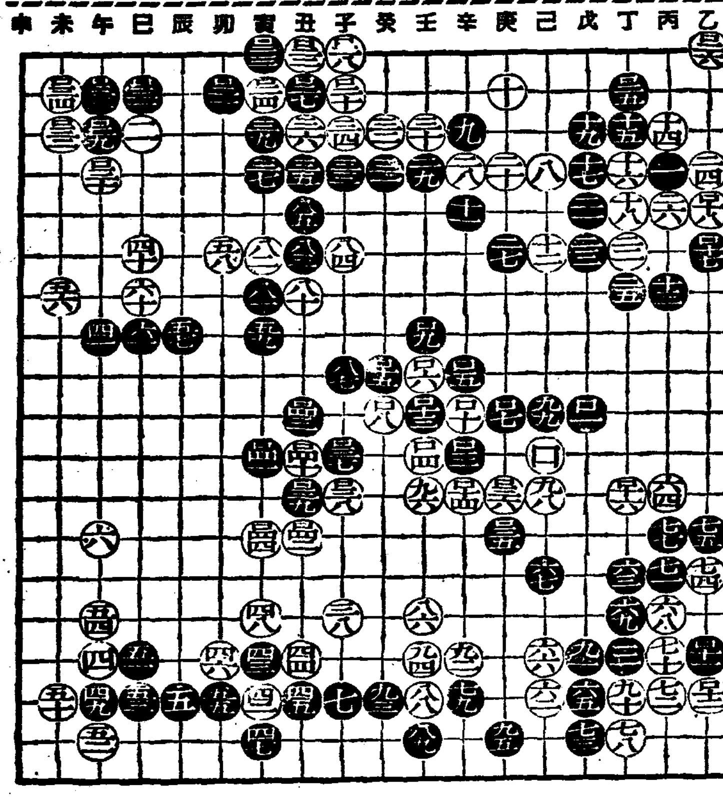
白軍의陣容不振은 消極的態度의所致

黑은 畢竟 一二九를 午의三으로 侵入하니 이것은 본래 오래전부터 抱懷하든바의 侵略的野心이다。白은 貪慾하게 一三〇을 午의四로가서라는데 黑은 一三一을 巳의二로 넘어오려하니 白은 事件을 擴大식히는것이 도리혀 不利하겟슴으로 될수잇는대로 現地收拾策을 쓰느라고 一三二를 未의三으로 멈츳니 黑은 一三三을 午의二로 어어오는 同時에 白은 다시 一三四를 未의二로 一石을 加하지아니하면 안되게스리 戰線이 整備되지못하엿다。그러니 黑은 또 先着의손을 빼여 一三五를 먼저 庚의十三으로 가서 白陣의 連絡을 끈코려엿보니 白은 不得已 一三六을 庚의十二로 이어오지아니할수업는데 그때 黑은 또 一三七을 子의十一로 가기는햇스나 旣往이면 丑의十二로 넘니 벌리는것이 조흘번도하지마는 何如間 子의十一로가니 白은 一三八을 子의十二로 버텃스나 黑이 다시 一三九를 丑의十二로 밧고보니 事態가 緊迫하기 짝이업시되여 一着도讓步하지안코하려한다 白은 一四〇을 丑의 十一로 反擊을하려하나 黑이 一四一을 寅의十一로 도리혀 反擊하니 白이形勢의 不利함을 推察하고 모든것을 抛棄하면서 一四二를丑의十三으로 다라난것은 잘못하면 黑이癸의十二 十三으로나와 壬의十四로가면 白이에서連絡해온 東北邊郡이또陷落을當할 憂慮가잇슴으로서이다 그러니黑은一四三을 丑의十으로가서 一戰의 勞도업시 自家天地를 形成하엿다 그러나 白으로보면 다시더黑의侵入을 막기위해서는 一四四를 寅의十三으로 더하지아니할수업는데 대체로이때까지 戰勢가黑에게는 生氣潑剌한대신에 白이 늘牽制를當하는 氣色이잇서 陣容이모다 萎弱한것은 白이 初盤부터 雄圖大略을가저지못하고 苟且偸安하는 消極的態度를 가지기때문이라고 할수잇슬것이다 (赤松子觀戰記)

●一二九 午의三 ○一三〇 午의四 ●一三一 巳의二 ○一三二 未의三 ●一三三 午의二 ○一三四 未의二 ●一三五 庚의十三 ○一三六 庚의十二 ●一三七 子의十一 ○一三八 子의十二 ●一三九 丑의十二 ○一四〇 丑의十一 ●一四一 寅의十一 ○一四二 丑의十三 ●一四三 丑의十 ○一四四 寅의十三

死點 ●一 丙의四 ●[illegible] 寅의十六 ●[illegible] 辛의十 ○[illegible] 壬의十 ●[illegible] 壬의九 ●[illegible] 丑의二 ○[illegible] 丑의十一

劫點 ○[illegible] 辛의十 ●[illegible] 壬의十 ●[illegible] 丑의二十



船腹不足으로 仁川에 滯貨山積
貿易商과 精米業者에 打擊多大
今年內로 消化는 困難

【仁川】 선박기근으로 말미암아 인천항에 체화가 만은이나 달한다함은 루보하바와 갓거니와 이에더욱 타격을받는것은 각정미소와 일반무역상들로서 해운구락부에서는 연일연야회의를개최하고 선박회항의대책을 강구중이라는바 적어도년내에는 오만톤의선복이업스면 소화키어렵다는바 이에비명을내는것은 일반무역상과 각정미소라한다

蘇萊公普生의 熱誠
戰地에 慰問品發送

【蘇萊】 부천군소래공립보통학교(蘇萊公普校)아동들은 지나사변이발발한이래 국방헌금과 위문품전이칠등 여러가지 적성을만히보혓거니와 또다시 황군위문품으로 가찌도끼(煙草)이백칠개를(가격이십원칠십전) 사서전지에 보내달라고 소래면장에게의뢰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소래공보생 일동은 일요일마다 용하야 솔방울을 긁거서판은돈이 육원십오전과 걸음정리한돈사원구전을 가지고 전기와가튼황군위문품을사서 전지에송부한것이라는데 일반은 그아동들의 위국지성에 감격함을마지안는다하며 동면에서 즉시원조품을 송부하엿다고한다

江華에도 陽曆市日

【江華】 오래동안지히여오든 장날도이해가 저물어감을따라마지막으로 음력장을 보게 되는바 오는해 일휘부터는 모ー다 양력으로 장을 보게되리라하야 금식제일부로 편게상인들에게 통고를 발하엿다 이로써 명년부터는 강화읍에는 양력으로 이칠(二日七日)오두시장(溫水市場)은 사 구(四日九日)로 시작하게되엿다

金永振 閔東玉 李二福 金鶴萬 鄭鳳業 池世運 梁在厚 高元榮 朴壽山 李三俊 李容勳 朴學乾 朴云 金龍伊 鄭峯七 朴永淑 許榮烈 尹四用 古川益壽 金相培 朴興萬 金炳晦 柳永昊 朴麟實▲十五錢式 申春範 李秉哲▲十錢式 李秉永 張順鎬 李龍石 柳聖男 金今福 柳元相 金尹鎬 李五長 [illegible]

仁川娼妓健康診斷

【仁川】 일반공창(公娼)에대하야는 화류병(花柳病)에대한것은으로 일율 겨하야검진을 하는관계로 다소안심은 되는편이나 상체의 각전염병에 대한것이 또한우려되야 지난십구일일반 창기에대하야 상체의건강진단을 한결과 팔십오명중에서 [illegible] 일명을 발견하얏다한다

一個月間煙草節約 百十五圓을獻金
永登浦飮食店組合에서

【永登浦】 시내영등포음식점조합(永登浦飮食店組合)에서는 조합원一百십五인이 지난달십오일부터 한달동안 한문한갑식의담배(마코)를절약하야 벙어리에다가 모아 헌금하기로하엿든바 십일일에 벙어리를깨치고 모은돈 일백십오원삼십칠전을 조합장김구선(金龜先) 김우선金(?)씨가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를방문하고 황군위문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엿다고한다

朴鎭煥 金九同 玄福健▲四十錢 金明述▲三十錢 李根培 張學俊 高斗榮 崔昌源 金[illegible]玉 金鍾煥 崔漢得▲二十五錢 金[illegible]▲二十錢 洪鍾範 嚴興燮 黃昌根 金貞春

北門外에 山猪禍
府外恩平面平昌里兩處에出現
豚兩頭를물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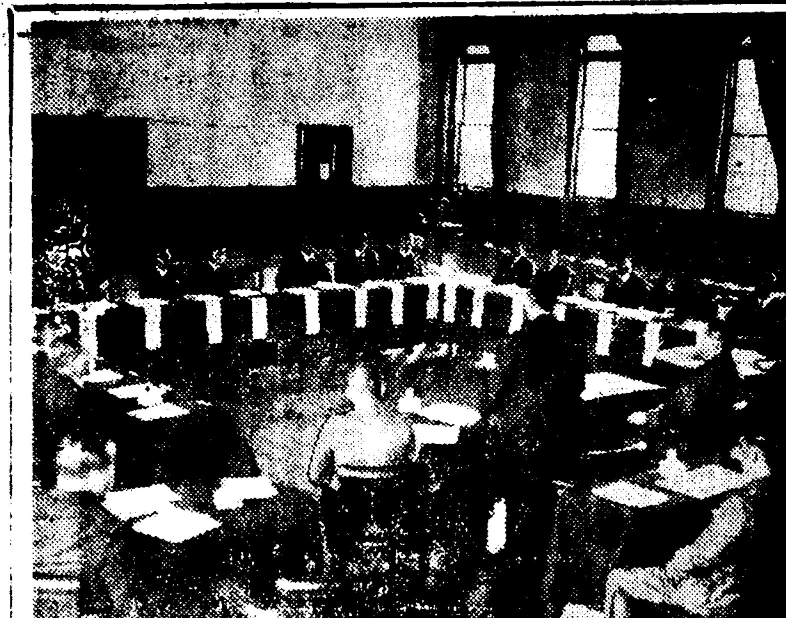
요사이 부내 창의문(彰義門)박게는 산도야지(山猪)가 곳곳에 출몰하여 동민들을 괴롭히고 잇다ー지난십팔일새벽 한시쯤되여 고양군은평면평창리(高陽郡恩平面平昌里)박순산(朴順山)의 집에 산도야지 한마리가나타나서 그집에서 길르는 숫도야지한머리를 물어갓고 또가튼날 가튼시에 그동리우기성(禹基成)의집에도 나타나 도야지새끼한머리를 물어간사실이잇서 그마을사람들은 이〃가축의공포〃를 잡어업새고저 요사이 밤을새가며 쫏는중이라한다

付岩町民의 歲末同情金

부내창의문(彰義門)박부암정회(付岩町會)에서는 다음과가티세말동정금 십구원삼십오전을 모집하여가지고 그정회총대 류영호(柳永昊)씨의이름으로 지난이십일 경성부사회과로 기탁하엿다한다
▲五十錢 金東根 李宗泰 尹宪暎

軍需品製造再請負相談會

기보한바와가티 경기도에서는 경성시내에잇는 중요철공업자 이십이명을 이십일일오후한시 경기도회의실로 초청하고 판게관민으로브터 군수품의 부분품이라도 재청부하야 제조할수잇슴가를 협의하엿다 (사진은 동회의광경)



開城詐欺賭博團 大金奪取코逃走

【開城】 지난십칠일밤 팔시경개성부내 만월정(滿月町)이백십일번지의 오호 한오범(韓鎬範)의 집에는 본적을 강화읍갑곳리(江華邑甲串里)산백오십팔번지에둔 김기석(金基錫)(二二)과동리사는 안호수(安鎬洙)(二二) 송천명(宋天命)(二二) 이한세(李漢世)(二二)등 네명의도박범이 공모하여가지고 부내북본정(北本町)이백구십오번지 강호남(姜好男)(二二)을 상대로 도박을 하자고 해서괴창국바미친을 보고 개장하자 적기호남이 현금구백원의 돈뭉치를 보란듯이 방바닥에 털ー내놋자마자 김기석은 독수리가티 이돈뭉치를 가로차 가지고는 동시에 달려들려 덤벼드는 〃호남〃을 남어지삼명은 작당우라하야 호수상래에 빼지게한후 전기금액을 빼서가지채 어데론지 종적을 감추엇는바 때마츰야경 가시중에 순찰하든 박사법주임(朴司法主任)이 이 급보를 접하고 즉시서원을 비상소집을 시켜 각처에 수배하는 동 모방면으로 행방을 감추엇다는 적화한단서를 잡고 형사대는 때를 노치지안코 그곳을 추격하얏든데 아즉 체포치는 못하얏다한다 그런데 이들네명이 이가티 엉뚱한 사기도박을 감행케된 원인을듯건대 전기피해자〃호남〃은원체 도박상습자로 지난팔월경기가해자중〃이야새〃 〃술명〃파 놀음하자하고 사기도박으로 륙백원을 먹엇든바 그후이들은 복수할생각으로 취기와가튼 수단으로 구백원을편취 도수한것이라한다

文字普及運動
楊州各農村에서

【楊州】 양주군에서는 군내각면을 총동원하야 농촌의문맹을퇴치코저전면을 다하고잇는중 망월면(望月面)에서는 본사발행의 문자보급교재를 독본으로 상백부를 면내각지흥회야학부에 배부하야 조흥회생활을 나타내고 잇스며 시문면(柴門面)에서는 각농촌진흥회갱생부락을 중심으로 십삼개소야학부에 선우한효를파 배며한문파 「한글」 까지 무상배부하야 각지흥회간부가 열성으로교수를 한다는데 야학생산 백여명중 오십이넘은 노년회생까지도 만히섞겨잇다한다

少年店員鐵道自殺
開城寒泉橋附近서

【開城】 지난십구일 오전팔시사십사분에 개성역에도착하는 경의선열차가 남산정(南山町)한천동어구의 선로를 통진해올때 나한십오륙세되어 보이는 소년한명이 이차에뛰어들어 무참한 자살을하고말엇는데 그는부내지정(池町)일백십사번지사는 박재덕(朴在德)의상점점원생재 박재덕(朴在德)로 시원이판명되엿는데 아직 나이어린그가 이가티 음직한죽엄을 하게된원인을 듯건대 그는시내모상점에 점원으로다니든중 주인되는이가 다른점원은 사랑하는데 자기만은 잇스나마나하게 냉대하므로 어린마음에 세상을 비관하고 그와가티 죽고만것이라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10】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송악산(十)

단오날굿을 예전에는 다섯곳 당에서 각각한듯것인데 대왕대비가 왕비적에 몸바더 나려온 나인이 별비를쓰는데 공평치못하야 굿당사이에 말성이난것을 왕비가알고 이후는 굿을 한테 가치하라고 분부를 나려서 큰굿당의 무당과박수들이 총중대아래로 몰려나려가서 상궁이 보교박게 나설때 일제히 문안을 드리엇다。상궁은 좌우의 부축을 밧고 총중대를 올라와서 대왕당으로 들어가고상궁일행과 가치온 대왕당 큰두당은 바로 굿할자리에 가서서 여러 무당박수를 지휘하야 차일친 안에 가외사람을 드리서지못하게 금하고 전물상을벌려내다가 자리자버서 벌려노케 하엿다。이때해가 벌서 아침때가 지나서 굿시작이 느진까닭에 전악들이 빨리 악기를 잡고안고 무당들이 지체안코 복색을 차리고나서엇다。장고소리가 떵하고나고 징소리가 쨍하고낫다 큰굿이 시작되엿다。

굿[illegible] 벌리게되엇고 대왕부인의 그네놀음을 녜전에는점심쉬는동안에 하든것인데 고녯덕을 입오랴고 헛애쓰는사람이 년년이 엄청 만하지는까닭에 큰굿판을 벌리든 처해부터 그네놀음을 점심전에 일직하기위해서굿을 두세거리 마친뒤에 한차례갈게쉬는동안을 너케되엇다 굿을 처음에 놋게시작하면 오누굴긴긴해에도 해동갈하야 겨우 열두거리를 다하게됨으로 뒤를 물아칠때가 만흔데 대왕대비의 치성굿을 겸친 특별한 큰굿은 할뿐아닐수도 업는데다가 시작이 놋게되엇스니 굿판이밟까지걸리기가 쉬웟다。굿판근처에 사람이 겹겹이둘러서서 평바닥에 선사람들은 발돗키엇고 퉁게이우에 선사람들도 굿구경을 잘하기가 어려웟다。청석골일행의 안즌자리에서는 무당의 노는꼴이 잘안보이것만 그래도 보라고 아페와서서는사람을 비키라고 야단치고 무당의 지거리는소리가 통안들니메서 떠드는사람들 조용하라고 책망하얏다。무당이 바야지를 들고놀아다니며 무엇을 빠르는지 가트니 부정놀이가 끗나가는줄 생각하고 무당이 넘어덕쳐를 하는모양이라 가망청배가 시작될줄 짐작하얏다 가망노래를하는지 만수바지를하는지 들으면서도 그래도 바라보고들잇는중에 굿자리에 안젓든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대왕당큰무당이 여러무당과박수들을 다리고 구경군을 헤치고 총중대를 올라와서 대왕당안으로 들어가고 그뒤에 기대는 장고를메고 전악들은제각기 악기를들고 올라와서 대왕당 압마당에 모혀섯다。

『대왕부인 그네뛰신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며 곳구경군들이 그네터로 몰려들어서 동그나무아래는 사람이 빽빽하고 올라다니는 총중대도 사람에 무치엇다。청석골일행도그네터 갓가이가랴고 잔듸바테서 길로를나려오는데 김억석이가 대왕당에서 올라오다가 맛낫건만 사람에 취하야 정신이업는지 아무말도안코 그대로 지나가랴고 하는것을 일행의 아즘서는 황천왕동이가 그어개를 한번툭첫다。

『어듸루를 가실라구 나려오십니까』

『자네는 어듸가나』

『저건너 무엇좀 가질러갑니다』

『자네 방문가』

『방부구 말구요』

『방부드래두 내말좀 듯구가게』

『무슨말슴이닙니까』

『그네를 대왕부인이 뛰구나다음엔 곳 우리누님을 뛰게해드리게』

『그건 제수로 할수업습니다』

『할수업스면 고만두게 우리가 해보지』

『삼공마마가 그네를 뛰신다니까 그다음에 뛰신다음에야 달은사람이 뛰게될걸이요』

『마마구 범정이구 다 고만두라게 순리를말해서 안들으면 장어치우구 우리누님을 뛰게 할테니 두구보게』

『그러면 큰일납니다 대왕대비전 몸바더가지구온 삼공마마를 조굼이라두 건드리시기만하면 뒤가무사할리 만무합니다』

『뒤가 무사하지못하드래두 겁안나니 념려말게』

『굿당은 결딴나구 저는 죽습니다 제발덕분에 고만둬줍시요』

『방문에 고만 몰일이나 보러가게』

『아니옵시다 고만두시겟단말슴을 듯지안쿠선 갈수가업습니다』

『내가 고만두구십지안흔걸 자네말루 고만두어』

『나중뒤시면 엇대서 그러십니까 그네뛰는보람은 송악대왕께서 굽어살피시기에 달렷지 처음나중에 달린것이 아닙니다』

『인제 잘알엇네 고만가게』

황천왕동이는 그제 자기누님을 상궁보다 먼저 그네뛰게할 생각이잇서서 김억석이의말을귀담아듯지도 아니하얏다。

今夜로드디어最終幕
本社主催 讀者慰安映畫音樂大會
二週日동안連夜超滿員의盛況

實用新案 No. 129200　專賣特許 No. 99982
OKS
製ブーレー
模倣他ノ追從ヲ不許　全鮮代理店ニテ御買求メ乞フ

名藥案內
米國最高 强壯劑 (肺病、腎臟衰弱、心臟病、腦神經衰弱、[illegible])
貧血症으로 自然이 無効하신분은 米國에서 製造한世界最高藥 「코카ー콜라ー」를 愛用하시요 百日中으로特効、服用無効時에는返金합니다。藥價三圓五十錢、試用瓶一圓九十錢。京城府[illegible]三丁目七。米國라ー마製藥會社 東洋總代理店 韓正洋行 [illegible] 振替口座京城二七、三八七六。

연주창[illegible] 清化丸 京城藥言 [illegible]

卒業記念寫眞帖 多少ニ不拘ラズ製作勉強致シ見積ハ速時回答申上マス 咸興府[illegible]町一ノ三 葉山製版印刷所 電話長九三七番

藥種商되는速法 提要 藥物学講義 朝鮮藥制法令改正其他一切追加再版出來 金子実本 三百五十頁 定價三、五〇 送料三十錢 京城寬勳町 寶星堂

朝報案內 醫師招聘(至急) 報酬面談後決定(厚待) 京城府寬勳町七五 來談要望

皮膚 チヤージ 차ー지
◎顔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頑癬습進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이ー름、버짐、陰蝨、白癬、무좀、疥虫、頭數비대외의害의完全治療는チヤージ……더럽지안코 알코지안코 全部에 完全治療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武田發賣品
淋疾
大腸菌性膀胱炎 腎臟炎 腎盂炎
保健衛生上의藥排泄에의한[illegible]用
イスラビン 이스라빈 糖衣錠
主成分 三・六ヂアミノ一〇メチルアクリヂニウムクロリッド
イスラビン糖衣錠의治療的作用은優秀且特殊的으로서、排尿時의疼痛을緩解하고、尿量을淸澄케해서漸次自覺的諸他覺的症狀을消退함。
本劑의特長 病原菌에對하야强力한發育抑制乃至殺菌作用을營爲함과同時에、非特異性刺戟에依하야免疫物質의産生을促進하고、病原菌에對한抵抗力을增强함。또特殊錠衣로햇스므로連用해도胃障害를惹起치안함。靜脈內注射와거이同一한治療的効果를奏함。
用法 一回一—二錠을一日三回每食後에服用
價格 [illegible]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朝光、女性、少年新年號暴風的人氣로發賣中

昭和十二年中의 朝取期米戰跡 ①
戰線은 六百二十丁

非常時라는 叫聲은 今年米界에 있어서 如實히 現顯되었다 一月부터 十二月까지의 一年間 朝取期米의 變動을 보면 그變線은 六百二十丁으로 그範圍안에서의 모든 活動이 非常時局과의 連鎖的關係를 적지아니하였다 一月은 內地豐作의 影響임에도 不拘하고 客年十二月騰勢의 『第一步』를 進하는 大勢에 世界的物價高에 伴한 重要商品의 暴騰과 環境의 好轉에 따라서 農家의 賣惜又는 歐洲政局의 險惡化는 株式의 暴騰을 招致하자 米界도 實需益益旺盛하야 新春發會價二十九圓十九錢에서 三十圓四十九錢까지 昂騰하였으나 其際에는 民衆의 人氣가 旺盛하야

農分米收穫高는 六千七百三十四萬二千餘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一割七分二厘의 增加로 豐穰의 失望的賣物이 現出하야 二十九圓三十錢으로 低落하였었다 그러나 其後 朝鮮米의 實收發表가 一千九百四十一萬餘石으로 昨年에 比하야 一割三分七厘의 減收를 示하였음 때문이니라 때마침 廣田內閣의 『總辭職』으로 後繼內閣組織의 大命이 宇垣大將에 降下하자 財界는 一齊히 好感을 表하고 農林省의 第五次發表七十萬石 實收高發表에 實需더욱 旺盛化하야 三十圓六十一錢으로 昂騰하였었다 그러나 宇垣內閣은 軍部의 反對로 結局 大命이

林大將에 降下되었으나 財界는 强力內閣의 出現을 期待하는가운데에서 越月하야 新甫四限이 三十圓九十一錢에 發會되었으나 結城藏相의 物價抑壓政策에 重要商品은 反落의 氣分이 濃厚하야 三十圓大臺를 割하였다 그러나 世界的 活況을 呈하였음에도 期米는 『殘存米』의 增加를 豫想한 動向을 確하는바 三月一日 小口賣方의 失望投賣에 反落하야 表가 四千六百八十七萬二千餘石으로 比昨年三百萬石의 減少이 다 그러나 二十九圓八十九錢에 發會된 新甫五限은 殘存米의 減少를 豫想하야 一圓三十錢高로 暴騰하였다가 後止米의 不足으로 若干反落을 보였으나 朝鮮米의 殘存高가 意外의 減少로 買物이 續出하야 三十二圓臺를 突破한

「大暴騰」을 演하였다 此際에는 政府의 最高米價抑壓을 危惧하는 賣方의 突發的賣出로 三十一圓四十錢臺로부터 反落하야 新甫六限가 七十錢臺로 反落하였는데 同月은 減級을 利用하게 되었음에 아니라 膨大한 軍事費의 追加와 生産力의 擴充政策은 物價의 騰貴에 拍車를 加하자 內地市場의 強氣筋을 人하야 新派의 猛烈한 買進에 出하야 二十二圓八十四錢으로 昂騰하였다 高價에는 利喰賣物이 現出하야 一圓五十錢臺로 反落하였으나 『他物價』에 比하야 割低한 米價는 實需益益旺盛하야

政府의 物價抑壓政策, 投機資金의 流入阻止로 株式의 暴落을 招來하자 米價는 二圓五十錢臺로 反落하였으나 新甫七限은 三十二圓八十錢臺에 發會하야 前月買方의 反動으로 三十二圓二十錢臺까지 昂騰하였으나 中旬에 發表된 五月一日現在 內地殘存米는 三千七百四萬二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百五十餘萬石의 增加임을 示하자 依然買物이 殺到하야 先限 三十二圓○一錢으로 暴騰하였다 此에는 利喰賣의 若干反落이 있었으나 實需의 旺盛은 依然하야 『全鮮的』으로 暴雨로 因하야 當時 朝鮮米의 五月一日現在 殘存高가 四百二十九萬餘石인 以外의 減少로 買人氣 湛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政局의 不安人氣에 株價의 暴落과 相俟하야 期米亦 軟調로 三十二圓十九錢으로 崩落하였다 六月에 入하자 暴騰하는 政局不安은

事實 林內閣의 辭職을 보게되고 政局의 明朗化期待에 人氣다시 强化하야 三十二圓二十五錢에 八限이 發會되고 後繼內閣組織의 大命은 近衛公에 降下되자 强力內閣의 出現이란 條件과 株式의 相場에 昂騰하야 六十二錢까지 上昇하였으나 國上天候의 好轉으로 『金麥稔』되어 三十二圓臺를 割하고 朝鮮의 麥作豐穰의 形勢로 三十一圓二十九錢까지 反落하였다 그러나 中部以北은 旱天을 續하야 三十二圓○八錢으로 反騰하였다가 一圓六十一錢으로 反落하였다가 月末至 反騰하여 八十九錢으로 反騰하였다 (未完)

滿洲國의 新關稅
朝鮮서 大體好評
米는 新稅, 砂糖, 石鹼, 精酒는 引上 水産物, 苹, 果人絹輸入稅引下

滿洲國의 關稅改正은 新關稅法을 二十日附로써 公布되고 來年一月一日부터 施行케되었는데 右關稅改正에 當하야서는 滿洲國과 貿易上가장 利害關係가 깊은 朝鮮側으로서 朝鮮貿易協會等이 中心이되어 總督府를 通하야 輸出商品의 關稅引下를 要望하얏든만큼 今回의 關稅改正은 朝鮮側의 要望이 大體通過된것이라고볼수있고 特히 對滿輸出의 大宗이되는 水産物苹果等의 輸入稅가 從來보다도 만히 引下된것이 注目되는 一方 從來보다 關稅가 引上된것은 從來無稅이던 米穀이 石一圓의 新稅를 課한것과 其他砂糖石鹼精酒의 稅率이 幾分引上된것等이나 此等은 滿洲國內의 消費稅의 新設과 國內産業保護政策上 不得已한것이라고보인다 一般으로 朝鮮內當業者間에는 異論이없고 好評이라한다

朝鮮關係比較

滿洲國新關稅設定에 依한 朝鮮關係輸出商品의 新稅率과의 比較는 大體如左하다

▲從來보다引下된것

人絹=從價四割을 二割五分으로 引下

干明太=百斤三圓三十五錢을百키로 三圓六十錢 (約六分九厘引下)

塩鯖=百키로 一圓七錢을 九十錢으로(九分九厘引下)

小蝦=百키로二圓七十錢 (九割一分三厘引下)

鯣=百키로九十錢 (一割引下)

林檎=百키로二圓七十錢 (一割引下)

琺瑯鐵器=從價一割引下

▲從來보다引上된것

砂糖=百키로十四圓五十錢 (三割八分八厘引上)

海參=二分五厘引上

其他米穀、石鹼、酒等도若干引上되었다

朝鮮産小麥粉 北支向躍進

從來 朝鮮産小麥粉의 對外輸出은 滿洲國에限定되었으나 事變勃發, 北支治安의回復과 共히 九月에 비로소 六十六萬四千百六十七斤의 對支輸出이 있었고 其後의 進出이 顯著하야 十月에는 百五十八萬七千百四斤 十一月에는 二百二十五萬一千七百三斤이되고 十一月末까지의 累計는 四百四十九萬六千斤 其價格五十四萬五千圓에 達하야 對滿輸出額을 凌駕한狀態이다 이때문에 小麥粉의 價格은 大幅昂騰을示하얏는데 新政權의 確立과 共히 그將來는 크게 期待된다

一月末까지의 對外總輸出額(滿洲는 一月以來)累計는 八百二十九萬四千九百九十三斤 價格九十六萬九千九百八十圓으로서 昨年同期의 四百二十一萬三千百六十三斤、三十九萬五千六百六斤에比較하면 倍가까운激增을 示코잇다

東海岸鰮漁
非常한豐漁
벌서千百五十萬樽

半島東海岸의 本年度鰮漁獲高는 非常한盛況을呈하야 十一月末까지에 이미千百五十萬樽에達하고 昨年의總漁獲高 九百五十萬樽을 突破하얏스며 漁期進行中의 咸南, 江原의漁獲을 包含할時는 더욱膨大한 數字로되어 本年은 價格이多少低落되었지만 非常한 豐漁이라고한다 이제各道의 鰮漁獲高를보면如左하다

▲咸北 本年六百五十萬樽, 前年四百二十萬樽

▲咸南 本年三百二十萬樽 昨年百六十六萬樽

▲江原 本年百八十六萬樽昨年二百萬樽

魚油入札制
當分形勢觀望

魚油의共同販賣制度는 超豐漁로 十一月以降 入札制의運用이 凍結狀態에陷하얏고 過般의油肥聯盟臨時總會에서도 局面打開가問題로되엇스나 協議한結果 지금곳改訂을行치안코 境遇에依하야서는 形勢를觀望키로되엇다 即

一、現在輸出의採算은 二圓五十錢前後인데 魚油自體로서는適剩이아님으로 形勢를觀望할

一、明年에는 朝鮮協同油脂工場도 操業을開始함으로 不實行의境遇는 이에充用할

一、金融에關하야서는 總督府、油肥聯의善處에依하야 對策을講究함

東拓系에서 有煙炭增産

東拓系에서는 일즉부터 有煙炭進出에 着眼하고잇는바 石炭增産時代에 呼應하야 全面的으로 다음의 各炭鑛에對하야 增産計劃을 進行하기로되엇다 即

◇會文炭鑛=輸送索道의 完成에 依하야 明年度부터 드듸어年産十五萬噸出炭에 着手

◇通川炭鑛=東拓鑛業의손으로 探鑛中이든바 增炭을實施

◇古乾原炭鑛=別個會社를 新設하야 積極的으로 採炭할豫定

◇鏡城炭鑛=東拓鑛業所有鑛區로되어잇는바 目下 探鑛을 急

「棉」出廻
八千五百萬斤

今年度棉의出廻는 二十日까지 總督府當局의 調査에依하야 判明된數量은 總計八千五百萬斤으로 昨年의 實數四千三百萬斤에 比하야 約二倍의激增을 示現하고잇는데 이것을 今年度收穫豫想高二億四千萬斤에 比하면 三分一의 寂寥한狀態이다 그러데 이것은 昨年度에比하야 棉價가 非常히 伐騰한데다가 今年度는 一方 一般農作物이 豐作으로하야 農村經濟가 자못 潤澤한것等이 主要한 理由인데 總督府當局에서는 今年度末까지에는 一億斤은 出廻하리라고 觀測하고잇다

鮮銀券記錄的增發
二億八千萬圓突破

二十一日에 繰越된 二十日의 鮮銀券發行高는 二億八千六百四十一萬圓으로 大增發되어 新記錄이엇는데 正貨準備는 一億八千四百八十八萬圓, 保證準備九千二百七十六萬圓으로 限外는 發行치안코 消滅된채이다

限外消滅

十八日의 鮮銀券發行高는 二億七千七百四萬三千圓으로 前日보다 約三百萬圓을 增發하얏는데 十七日에잇서 一千二百萬圓의 十五日以來示現한 限外發行은 十七日에 消滅되엇다 右는 歲末關係에不拘코 豫想보다는 發行高가 적은것과 『聯銀』問題關係로부터의 操作을 보이는데 鮮銀券은 今後二十四五日頃까지 增發되어 二億八千萬圓乃至九千萬圓程度의 最高發行을 示할것으로 보임으로 限外發行도 또 이에 應하야 다시示現하리라고 보인다

米國小麥收穫

【華盛頓十七日發商通】 米國農務省은 一九三七年度의 米國小麥收穫高를 反別及 收穫高를 如左히 發表하얏다 (單位反別千에이카 收穫高千부쉘)

冬小麥 收穫反別 四六、九〇六 收穫高 六八五、一〇二

春小麥 收穫反別 一七、五一四 收穫高 一八八、八九一

北支鐵道와 密接連絡
大陸鐵道計畫
朝鮮、滿洲、北支連繫

【奉天發同盟】 滿洲重工業開發會社의 設立, 滿鐵附屬地行政權移讓等에伴하야 滿鐵의 從來管掌하야온 産業及行政部門은 모다 移讓乃至分離되어, 多年 파이오니아로서 特殊使命을 遂行하야온 滿鐵은 이에비로서 純然한 鐵道會社로 되리가 되엿는데 이를 契機로 國內鐵道의 經營方針을 根本的으로 是正化하는同時에 다시나아가 朝鮮、北支鐵道와의 關係를 一層緊密케하야써 朝鮮、滿洲、北支를 連繫하는 大陸鐵道聯合結成의 促進에 着手할것이라는 議論이 有力하게 擡頭하야 着着 實現의 機運으로 向하야 이에 滿鮮直通列車(히까리、노조미)는 哈爾濱延長、滿支直通列車의增發 或은 國內運賃及其他運輸機關과의 一部運賃統一問題는 이미研究되고잇서서 아마明年中에는 具體化하리라고 觀測된다

朝鮮鑛業開發經營
無配、借入金主義

日窒直系事業으로 改組된 朝鮮鑛業開發에서는 果然 日窒式經營이라고할 朝窒과 同樣無配當, 借入金中心의 積極事業擴張

一、同社는 從前一割配當을繼續하고잇는바 日窒直系로 改組된今期부터 斷然 無配當을繼續할

一、現資本金三百萬圓으로 倍大增資를 中止한것으로 現投資額은 一千五百萬圓에 達하는바 三百萬圓의資本金으로 約三千萬圓의 投資를할豫定

一、産金의積極的擴充外 硫化鐵鑛採取 明礬石 硫鉛을 同社事業에移하야 硫化及明礬은 이미 積極的으로 開發中으로 興南工場用의原料로함

一、産金製鍊의 擴充과함께 亞鉛製鍊도擴大

等이 그計畫의大要인바 一割의高配當을 餘裕잇게할수잇는事業을 斷然 無配로하야 擴充에 入하는것은 野口流의 躍如한것이라한다

朝鮮鑛業開發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利益金處分案承認件 二、定款一部變更件 三、取締役一名增員件 四、市川(誠)金田兩監査役任期滿了에伴하는 改選件 五、市川(浩)飯沼兩取締役辭任補選件 을 附議할터인데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利益金 七八九、五二〇 其中 財産銷却 六〇〇、〇〇〇 法定積立金 一〇、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二〇、〇〇〇 退職基金 四〇、〇〇〇 役員賞與 一〇、〇〇〇 前期繰越 一三〇、一二六 後期繰越 一三九、六三七

小賣物價低落
十月中九個府

昭和十二年十月中九個府(京城、大田、木浦、大邱、釜山、平壤、新義州、元山、淸津)의 小賣物價는 調査品目九十四種中 前月에 比하야 騰貴된것 十九品 下落된것三十七品 保合三十八品으로 指數總平均(昭和十一年一〇〇)은 一〇六、一로前月인 九月에比較하면 一、八의下落을 示하얏다 이제 品種別前月比는 如左하다

穀類二、五低 肉類一、八低 飲料及調味料〇、八低 蔬菜及果實類六、三低 魚及海藻類二、四低 衣料及身廻品一、八低 燃料一、四高 雜品五、四高

簡保契約三萬件

朝鮮簡保의 十一月中新規契約數는 內地人四千六百二十八件 朝鮮人二萬六千六百八十三件 合計三萬一千五百十一件인데 地方別로示하면 如左하다

▲京畿四、五四三▲平北三、四一一▲全南二、六二五▲黃海二、一五五▲咸北二、〇二〇▲全北一、五五六▲江原一、三一九▲慶南三、六一四▲慶北二、六五三▲平南二、四二三▲咸南二、〇二五▲忠南一、七六〇▲忠北一、四〇七

◇會社總會一束◇

京城紡織에서는 第二十一期定時株主總會를 二十日午後二時南大門通同社內에서 開催하고 左의 利益金處分案(六分配當繼續)을附議可決하얏다

▲利益金處分案(單位圓)

當期利益金 六七、九四二 前期繰越金 二〇、三四〇 此處分 法定積立金 三、四〇〇 舊株配當金 二四、〇〇〇(六分) 新株配當金 二四、〇〇〇(同) 後期繰越金 四〇、四二一

▲朝鮮織物에서는 二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定時總會를 開催하고如左한利益金處分案을 附議可決하얏다(單位圓)

當期利益金 四〇、四一五 前期繰越金 三、一二四 合計四三、五三九 處分 法定積立金 二、〇〇〇 別途積立金 二、三〇〇 配當(年七分)二〇、五八四 建物機械銷却 一一、〇〇〇 役員賞與金 二、〇〇〇 退職慰勞基金 二、〇〇〇 後期繰越金三

許하고잇서 明春부터採炭의兩者가잇서 同系統의出炭五十萬噸은 不遠한將來에 期待된다

明年初市勢豫想
懸賞募集

初立會 (一月四日)

朝取期米 三月限發會價(前場寄付)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付

東新株 同 上

(以上豫想을左記項目으로募集)

賞品

一等 十 圓 三名

二等 五 圓 六名

三等 (朝鮮日報一個月購讀券) 十二名

適中者多數인때는 抽籤으로定하고 適中者가업는때는 最近價로써順次로決定함

▲締 了=明年一月二日本社着에限함

▲發 表=明年一月七日

▲注 意=住所氏名을明記하야 朝鮮日報經濟部로보내고 用紙는葉書로 一人一張一題에限함

朝鮮日報社

今日의 市勢 (廿一日)

株式 一高一低 浮動

前場堅調 昨日의狂騰後今朝는 人氣平靜에回復하고 外電高로 好感되어 保勢裡에 寄付는堅張하엿스나 人氣는 狀態에서 다시沈靜하게되어 保勢的態度로 前場을마쳤다

後場浮動 後場은 少強裡에 新東新百七十三圓三 鐘新二百八十二圓九에 寄付한後 閑散裡에 小幅浮動狀을 보엿다

平靜回復保勢

昨日의 一場狂騰後 今朝에는 人氣다시平靜에 回復하야 保勢裡에 徐徐狀을 보이게되엇는데 그런中에도 市勢는 依然强味를不失하고잇는것이 如何히人氣가堅强한가를 可히推測할수잇는同時에 곳까지 不振하든 株式도 ... 十餘圓 日字로八十餘日의 騰貴를 나타내고 ... 그러므로 價格으로 東新五十圓內外로 一圓二圓하는 것도 ... 一高一低로 一巡의 ... 分岐를 보일것이 아닌가 解釋된다

朝取新舊暴騰

手形株의 昂騰과 諸株의活躍으로 朝取新舊도 堅調裡에 推移되고잇섯스나 他諸株에 比하면 亦是保勢에 不過하야 그比率이 顯著한 券가잇섯는데 最近에이르러 某一派의 思惑買物이 나타나서 昨日에는 朝新이三十五圓臺로 上進하엿고 다시今朝에는 三十七圓三의 高價를 現出하엿스며 朝取도 이에따라 九十七圓五의 高價를 보이게되엿다 近來에드러 買氣를 보이게되엿다

國債 短資軟化 續堅

【東京電話同盟】 米穀證券償還으로 短資가 軟化하엿기때문에 이로 好反映하야 市況은 堅調하야 强하야 內地債는 大概五錢上伸하고 佛貨는 十錢續進하얏스나 米貨는 價待薄에 壓迫되어 五十錢乃至 七十錢下押되엿다

期米 漸弛裡에 不勢

前場續軟 今朝阪地三十四圓三十錢이 四丁反落을 報하고 中은 一圓三十七錢인 三丁低로 先限은 三十一圓三十七錢인 三丁低로 寄付를 始한後 阪地二十一錢으로 反落하면서 三十錢까지 低落하엿다가 阪地二十二錢으로 小戻하는 七節三十七錢으로 結局限低 二十七錢을 보고 四十錢에 止하다

後場不勢 後場은 五丁低로 三十一圓三十五錢에 止場한後 二十九錢 二十八錢 二十六錢으로 五節二十七錢의 細刻이나 市勢軟弱하엿다

年末軟弱納會?

當地三十二圓二十五錢과 阪地三十五圓丁의 高價는 米出廻期로의 在來稀薄又는 新公定米價의 引上을 強材로 ... 氣의 行動은 餘儀없이 一巡되고 丸ㄱ米인 丸ナ米의 ... 이相當하야 實勢의 壓迫을 加하고 大幅引上을 豫測하여 最高公定價는 數字上으로 보아서 ... 되엇스므로 買氣依然萎縮되어 ... 話題가 되어잇는 當限은 ... 十一圓十一錢에 軟弱의 會도 限도 軟弱叢를 脫치못하리라고보는 ... 年末大納會를 告하지안흠 ...

今後買上如何

米穀應急措置法案에 依한 高公定米價의 一割下値의 買上은 如何해야 實現될지 此에 對한 一般의 注意는 新公定米價의 決定을 앞두고 더욱 甚深하여진다 今年度의 最高公定米價는 茨城縣三等으로 昨年의 二等보다 ... 二十錢를 加한 ... 米價는 生하게 되엿스므로 其實昨年의 最高公定價보다 三圓十二錢의 引上을 하세 ...

市場小感

(株) ......暴風後의靜寂으로 今朝에는 물결이잔잔하나 市勢는 意外로 堅强 ......

(米) ......新公定米價發表에 對한 行動도 ......

正米 軟調

京城軟調 新正米의 出廻는 漸次增加되고 一兩日의 低落을 ...

仁川在庫米減少

【仁川】 今週仁川在庫米量은 前週同期에比하야 三九六九叺의 減少를보엿다는대 如左하다

仁川弱含

年末도兼하야 內地當用側의 手當一巡後라고 依然買氣濃이어서 다만先約賣用의 ...

釜山下放

産地의 賣物은 漸增이나 買方移出側의 鈍化로 ...

大邱奔落

歲末接近과 함께 東地換金的賣物이 ...

群山崩落

東地의 猛烈한 ...

木浦崩落

買方側唯一의 依存材料이든 公定米價도 失望을 ...

朝取期米取組內容

	中限		先限	
	賣方	買方	賣方	買方

朝取 金盃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六六

東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二一二四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東城物價 (廿一日)

海外經濟 (二日)

銀行券 (三日)

手形交換·金利

對外爲替

正米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期米